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유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서 그 참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6월 27일 (토) 제 1783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피조 자유와 행복 추구해 나간다!

제 244주년 독립기념일, 의미 되새기는 날 되길

연일 재확산 추세로 돌아선 코로나19, 또한 인종차별로 인한 미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상황 속에서 제 244주년 독립기념일이 다가온다.

백악관은 오는 7월 4일 대규모 국가 행사("2020 Salute to America")를 예고하며 미국 독립기념일이 '코로나 해방일'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즉 미국 내 코로나 종식과 함께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선포해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워싱턴DC에서 마칭밴드와 군부대, 경찰, 오토바이 순찰대, 기마대, 탱크, 전투 헬리콥터 그리고 전투기를 동원해 역대급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를 축소시켰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측은 독립기념일 행사를 대통령 자신을 위한 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간

미국 국민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사회적 혜택은 영국의 온갖 횡포에 맞서 자치권을 획득한 개척민 대표들의 용기와 희생의 결과다. 일반적으로 독립기념일의 의미는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날을 뜻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독립선언을 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린다. 13개 식민지가 대영제국을 대상으로 독립전쟁을 벌인 것은 1775년부터 1783년. 그러므로 미국의 개척민들은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8년이라는 세월을 피 흘리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와 맞섰던 것이다.

바로 이들에게 있어, 독립선언문은 대영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부동의 진리이자 비전이었다. 불과 1,337개 단어로 이뤄진 간결하지만 강력한 독립선언문은

독립기념일 행사는 당파성 없이 미국인의 축제로 치러져왔고 현직 대통령이 연설에 나선 적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훌륭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성취만을 강조했으며, 미국이 오늘날 강력한 경제적 발판으로 세계평화와 자유의 수호자가 되게 한 토양 즉 미국 독립선언 의미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4년 전 소수의 애국자들/건국자들은 미국 식민지 주민이 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갖고 평등하게 태어났음을 선언했고, 이는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대담한 일이었으며 이후 혁명에서 승리하리라 믿었던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마침내 독립을 이뤘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는 날이 바로 독립기념일이다!



먼저 첫 문단에서 이 선언을 만국 일반에 공표하는 맥락을 설명한다.

"인간사의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타자에게 얽매이게 하는 정치적 속박을 해체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지상의 열강

들에 끼어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한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는, 인류의 의견들을 예절 있게 존중하면서 자신들이 독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선언해야만 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바로 그들이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지를 추구하는 것이 "자연의 법과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법(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에 의거해 마땅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선포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해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명한 진리들은 무엇인가? 이제 독립선언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대목이다. 바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됐으며,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하고 같은 양도 불가능한 일정한 권리들을 부여받았다"라는 '천부인권'의 선포다.

여기서 선언문은 사람의 권리가 그 어떤 세상의 왕이나 정부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창조주가 각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임을 틀림없이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부들이 의미했던 하나님이 추상적인 이신론적 '부동의 동자(Unmoved Mover)'나 막연한 초월적 질서가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인격적(personal)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코로나19,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BBC, 코로나19의 '세컨드 웨이브' 정의와 그 심각성 추적 보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몇몇 나라는 여전히 대규모 전염과 싸우고 있고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나라들도 '세컨드 웨이브'를 우려하고 있다. 100여년 전 스페인독감 당시에는 처음 발병상태 때보다 세컨드 웨이브가 더 치명적이었다. 세컨드 웨이브는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 걸까?(Coronavirus: What is a second wave and is one coming?)

먼저, 세컨드 웨이브란 무엇인가?

바다의 파도를 떠올려 보자. 확진자의 수는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데 하나의 주기를 코로나바이러스의 '웨이브'라 할 수 있다.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다. "완전히 과학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웨이브 하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자의적입니다." 워싱턴대학교의 마이크 틸드슬리 박사는 BBC에 말했다.

어떤 이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무조건 세컨드 웨이브라

말하지만 보통은 퍼스트 웨이브가 좀 굴곡이 있는 경우다. 현재 미국의 몇몇 주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이렇다.

한 웨이브가 끝났다고 하려면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확진자의 수가 현저히 떨어져야 한다.

세컨드 웨이브가 시작되는 것은 신규 감염이 꾸준히 증가할 때다. 24일간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첫 확진자가 나온 뉴질랜드나 50일째 감염이 없었다가 다시 확진자 발생이 시작된 중국은 아직 이런 상황이 아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인환 목사



푸른초창 이창중 목사



코로나와 온라인 예배 김항만 목사

월드 미션 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말씀, 성경대독,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ress@chpress.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시.스.리만슨 메도웬즈, 데이스	침묵 앤드 슈사쿠, 흥성사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페아	독특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 리처드 탈라, 리더스북
--------------------------------------	--	--------------------------	--------------------------	--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발행인 칼럼

왜 다른 것을 주실까?



김성국 목사 (켄즈장로교회 담임)

한해의 절반이 꺾이는 7월을 맞는다. 잊을 수 없는 2020년 상반기였다. 누구도 원치 않았고 생각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구하지 않은 이 어려운 시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1995년 여름이었으니까, 꼭 25년 전 일이다.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열린 KOSTA에 참석하여 예배와 여러 강의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있었다. 그 때 강사 중의 한 분이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었다. 강의라기보다 간증에 가까웠는데 그는 S대를 졸업하고 그 당시 학력 좋은 젊은이들 누구나 그랬듯이 대기업에 취직해 소위 연봉 높은 "화이트칼라"가 되는 일을 기대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생각도 못했던 근육무력증이라는 병명과 함께 8년간을 쓰러져 누워 있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 다시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을 때엔 다른 친구들은 저 만치 앞서 나가 있었다고 한다. 어느 회사라도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긴 힘들어 모(某) 여대 근처 외진자리에서 옷 장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장사를 발판으로 대기업의 사원이나 임원은 못되었지만 자신이 직접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생각했던 "대기업 사원"이 아니라 8년의 질병을 주었고, 꿈도 안 꾸었던 여성 옷 장사를 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것을 훗날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다. 그 때 어느 무명의 한 흑인 병사가 이렇게 기도드렸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 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 오늘이나 시간을 돌아볼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다른 것을 자주 주신다. 처음에는 놀란다. 이게 무슨 일인가하고 한참 의아해 한다. 삶이 자기에게로 철저히 굽어있는 자는-이런 태도를 죄라고 부른다-의아함에서 헤어날 수 없다.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이 기준이니 다른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도무지 스그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삶이 하나님께로 열린 사람은-이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부른다-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이 알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내게 꼭 필요했던 것임을. 그래서 심오한 감사가 나온다.

그렇다. 하나님은 흐릿하지도 않으시고 성품이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다. 다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리면서 하나님께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7월이다. 원치 않는 팬데믹을 주셨다고 7월을 하나님께 시험 들어맞을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맞을 것인가.

성령이여 오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CT, 휘튼대학 맥카우레이 교수의 '인종차별 해결은 성령강림' 제재

지난 성령강림주일에 전 세계 교회들은 오순절, 곧 성령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복음이 세상의 다양한 언어로 그들의 귀에 들렸던 기적의 날을 함께 모여 축하했다. 오순절의 기적은 저 경이로 운 사건(부활)과 기적(승천)에 앞서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한 오순절과는 달리, 우리는 비극과 트라우마와 비통함 가운데서 이번 오순절을 맞았다. 조지 플로이드가 수갑이 채워진 채 달려달라고 애원하다가 죽은 다음에 미니애폴리스(그리고 다른 많은 도시들)에서 시위와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모두 세계적인 전염병이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다. 부활절을 지낸 다음이 아니라 마치 사순절이 연장된 느낌이다.

성공회 사제이며 휘튼 대학(Wheaton College) 신약 조교수인 맥카우레이(Esau McCaulley)는 '인종차별'로 불타고 있는 이 나라에 교회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강림을 강력하게 선포해야한다고 말한다(A Nation on Fire Needs the Flames of the Spirit: As racism tears the country apart, the message of Pentecost can help the church find its voice).

내가 정치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왜 내가 흑인이 흑인에게 행하는 범죄에, 흑인 가정의 붕괴에, 낙태에, 약탈에, 우리가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문제들에 분노하지 않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물론 그 "실체"란 이 나라의 흑인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인종 트라우마와 약약의 400년 역사다.

시위, 폭력사태, 경찰의 가혹행위가 오순절과 사도행전 2:1-21의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메시야의 죽음이 미니애폴리스의 불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사태에 관해 교회에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나 놀라운 일인가! 역사책들은 그렇게들 말하겠지만,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국가가 후원하는 공포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이었던 120명

집 크로우 시대의 불,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오점이 돼버린 저 지경도록 되풀이되는 고통들이 존재하는 이 미국에서 흑인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교회가 사랑의 행동으



하라는 성령과 아시아나 유럽에서 그렇게 하라는 성령은 따로 있지 않다. 한 성령님이 하나의 복음을 이 땅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하신다.

성령을 통한 복음의 사역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행상을 지니고 있는 자로서 공통의 신분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공통의 신분을 행동이나 언어로 부정하는 이념은 전부 이단이다. 그리고 인종편견의 이단이 이 나라의 일부 크리스천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실들을 목격하면서도 그렇게 한다.

둘째, 복음은 우리를 밖으로 내보낸다.

복음은 첫 제자들을 그들 자신의 문화 밖으로 내보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했다. 오순절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교는 로마제국의 다양한 언어들과 공동체들로 파져나가 있었다. 복음이 한 첫 번째 일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는 것이었다.

복음이 우리를 한 공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듣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이지 않았는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이 기독교가 영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정말 하나 돼 있다는 것

성령을 통한 복음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복음은 자신의 문화밖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

교회가 할 일이라고는 한 손에는 보수적인 FoxNews를, 다른 손에는 진보적인 MSNBC를 들고서 혼수를 두는 것 아닐까?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이때, 성경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9분 동안 목이 짓눌릴 수 있는 세상을 빼놓는다면 어디에서도 예수에 관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위의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길에 휩싸인 도시들을 배경에 놓고서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첫째,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사도행전 2:1-21은 한자리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한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 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 이 일

의 모임에서 초라하게 시작됐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시골 농민출신의 마리아 같은 여자와들과 전에 세리였던 마태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도 별다르지 않았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에게 협력,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해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이었고,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그런 짓의 희생자였다.

어떤 종교집단이 억압받는 사람들과 전에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허용할까?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한다. 무엇이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했을까? 그들이 공유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하나 됨이 오늘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인신매매, 노예제,

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흑인들의 삶과 함께할 것이며, 기독교 전통이 흑인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들을 증언할 것이다."

교회에는 이렇게 선언할 능력이 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교회로 하나 된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성령과 남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성령은 따로 있지 않다. 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과 빈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은 따로 있지 않다. 아프리카에 가서 말씀을 전

을 알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흑인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도무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맞설 수 있다. 교회는 세속 인종주의자들을 맞설 수 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끼리 사생결단하듯 싸우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상황이다. 시편이 말했듯이 말이다. (14면으로 계속)

[알림] 7월 4일자는 정기휴간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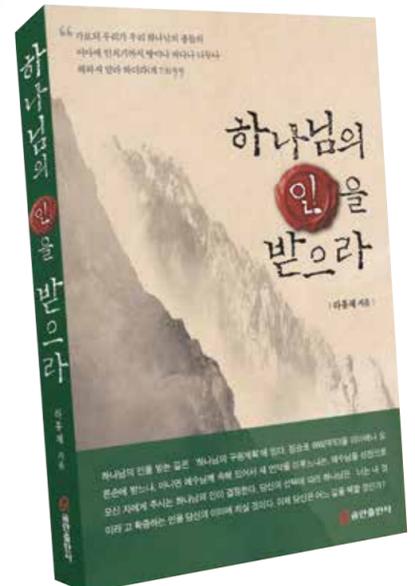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986-4400. Fax: (718)9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하나님에게서 동등하게 피조

(1면에서 계속)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쳤음을 본다. 이렇듯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 후세에게 전해준 선조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바로 독립기념일의 의미다. 코로나19 확산 두려움 때문에 위축된 상황에서도 독립기념일은 황금연휴다. 불꽃놀이를 감상하고, 바비큐도 즐기고 이곳저곳에 펼쳐진 인디펜던스데이 스페셜 세일에도 기웃거리며 보며 오랜만에 여유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립기념일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의무와 도리도 잊지 않아야 한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그들과 미국 독립기념일의 의미를 꼭 한번 다지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학습을 통해 많은 상식이 있을 자녀와 독립기념일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감사 기도드리는 것으로 이번 휴일을 진정한 황금연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몇몇 과학자들은 이란의 현재 상황이 세컨드 웨이브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세컨드 웨이브는 무엇으로 촉발되나?

봉쇄를 너무 과하게 해제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봉쇄는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 직업도 줄었고 사람들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는 있었다. "궁극의 문제는 일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통제를 유지하느냐" 런던 위생열대역학대학원의 애덤 쿠차스키는 말한다. 봉쇄를 얼마나 해제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봉쇄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것이며 접촉 추적 앱이나 마스크 같은 바이러스 통제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인접 국가에서는 전염이 통제 가능한 시점으로 봉쇄가 해제될 경우 전염병의 재발이 매우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쿠차스키 박사는 말한다. 도축장에서 발생한 전염으로 6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독일에서는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집단감염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당 지역을 봉쇄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세컨드 웨이브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로 많은 찬사를 받았던 한국은 그런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해제했던 일부 조치를 다시 도입해야 했다.

세컨드 웨이브가 처음 창궐 사태와 똑같이 진행될까?

만일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의 R값(각각의 확진자가 감염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수의 평균)은 3이었다.

이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염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R값이 다시 그만큼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쿠차스키 박사는 말했다. "어떤 나라든 모든 조치를 다 해제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통제에 안 되고 있는 브라질이나 인도에서도 R값은 3.0이 못 돼요."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세컨드 웨이브는 첫 창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 세컨드 웨이브를 막기 위해 봉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한 옵션이죠." 팀드슬리 박사는 말한다.

세컨드 웨이브는 언제 발생할까? 겨울이면 더 심해질까?

쿠차스키 박사는 봉쇄조치가 해제되고 있어 바로 다음 주나 다음 달에도 지역단위로 감염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세컨드 웨이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팀드슬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봉쇄 조치가 상당히 완화되면 8월말이나 9월초에 세컨드 웨이브가 올 수 있죠." 다른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겨울에 더 잘 전염되기 때문에 겨울이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다.

바이러스를 겨우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작은 계절적 요인 하나라도 전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절이 봄이라 다행이었죠." 노팅엄대학교 조너선 볼 바이러스학 교수는 말한다.

"세컨드 웨이브는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정부의 숙제는 확진자 수의 정점이 의료체계를 마비시킬 정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약해져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까?

세컨드 웨이브가 치명적이지 않으니 반론의 근거로는 바이러스가 보다 사람들에게 잘 전염

되기 위해 치명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게 있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조차도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이지 않을 정도로 약해지면 더 잘 전파된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건 늘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 연구자들이 내놓는 게 이른 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볼 교수는 말한다.

또한 이런 전개는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더 잘 전파되도록 변이하거나 덜 치명적하도록 변이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시론

아버지 날 단상



김인한 목사 (전 총신대 총장)

이번 아버지날에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요약하면 고맙다는 말과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고, 그 속에는 그들의 깊은 진심이 있었다. 많은 위로가 되었고,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연 내가 이들에게 이러한 진심어린 말을 들을 만큼 그동안 내가 아빠 노릇 잘했나 라고 자문자답해 보았다. 아무래도 나는 뺑뺑이 아빠였다는 생각이 앞섰다.

유학시절 친구의 중매로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아들 딸 아들 삼남매를 낳았다. 우리들에게는 미국에 아무런 일간척이 없었기에 약전고투하면서 이들을 키웠다. 가난과 무경험, 감당하기 어려운 학업과 직장이 주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들을 짓눌렀다. 설상가상으로 허약한 건강 때문에 우리들 자신의 생존도 위협받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삼남매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총신대학교의 교수로 초빙 받아 한국에서 교수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몇 년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이반이 잡힐 때까지 나 혼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교수생활과 아내 노릇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온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식들을 키워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와 학습의 차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다시 집사람과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나는 또 다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아내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학교 사임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구했지만, 왜 나에게 지워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팽개치고 너 좋은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가?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응답 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소명과 아내로서의 자식에 대한 의무 사이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엄중히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 30여년의 총신대 교수와 마지막 보직으로서의 총장, 서울역 노숙자들 사역인 찬송은진구들 이사장, 대신대 총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에 위치한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랜드) 왕국의 세위진 Eswatini Medical Christian University의 Vice Chancellor, CEO/President의 직을 끝내고 최근 미국의 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나는 자식들과 항상 함께 지내지 못하는 소위 거리가아빠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여름과 겨울 방학 두 달과, 공무출장 중 잠시 만나는 시간 동안 겨우 자식들과 얼굴을 맞대는 아빠 노릇하다 보니 제대로 이들에게 아빠 노릇을 할 리가 만무했다.

모든 공직을 마감하고 미국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 아내가 우리 자녀들의 아빠였고 엄이었다. 자식들 옆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모두 각각의 가정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내 나이는 이미 70을 훌쩍 넘어서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나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지금 집 사람과 얼마 전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고 있다. 아내와 항상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참 좋지만, 그렇게도 오랫동안 바라고 또 바랐던 사별하는 자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영영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올해 아버지날에 자식들이 이런 아빠에게 보내 온 감사의 문자와 이런 아빠를 그래도 깊이 사랑한다는 문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특별한 감회와 반성을 하게 한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모두 사정이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자식을 잘 키웠다는 자부심보다는 회한과 아쉬움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한다. 젊을 때는 경험부족과 미숙함,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 등으로 자식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경험도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생길만 하면 이미 그때는 아이들이 모두 각각의 인생살이를 하느라 아빠와 소원해지고 만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나 이런 아빠 엄마가 유독 손자녀들을 보면 그들이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워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이 손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지는가 보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참 미안하다. 못한 아빠인데도 너희들이 진심을 다해 이런 아빠를 고마워하고 사랑해주어 너무도 고맙다. 너희들은 이런 아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긴 너희들의 자식들에게 훌륭한 아빠가 되어야오.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색소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내 - 치아미백(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The Korean Christian Press **www.chpress.net**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 718-886-4400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 info@chpress.net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로마에서 구금 중에 드리는 편지

오늘은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내리네요. 6월에 로마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는 것은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3, 4월, 그 기막힌 지중해의 파아란 하늘과 짙은 감청색 바다를 금년에는 잃어버렸습니다. 한껏 기대가 컸던 지중해 바다는 몹시 섭섭해하는 것 같네요. 대신 6월에 소

나기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소나기가 내리니 3, 4월의 날씨처럼 서늘하고 유쾌하네요.

현재 지구촌은 나사가 풀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난데없이 메뚜기 떼가 하늘을 뿌옇게 가릴 정도로 찾아와 사람과 짐승들이 먹어야 할 식물

이나 푸른 잎들을 허기진 사람처럼 먹어치운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프리카 뿐 아니라 중동을 휘돌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까지 대장정을 점령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훈족이 유라시아를 정복하고 더욱 목말라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뿐인가요? 지금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코로나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틸 뿐 아니라 틈이 보이면 사정없이 머리를 디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때 아닌 홍수가 일어나 수많은 댐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송충이가 그동안 알뜰하게 가꾼 산림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사람에게까지 가렵증에 시달리게 한다고 하네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환란 앞에서 숨쉬기도 어렵게 되네요. 놀라운 것은

이번 코로나는 선진국, 후진국이라는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후진국으로 여기는 국가들의 피해는 크지 않는 대신,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맥없이 강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진보된 기술을 비롯이라도 하는 듯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두 달을 입원했다가 죽은의 관문을 겨우 넘어 회복하고 퇴원한 사람에게

무려 13억의 병원비가 청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는 전 영역의 상식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1.50~2.00m를 떨어지게 합니다.

그 뿐입니까? 카페 한잔 마시기 위해 나가려고 하면 완전무장을 요구합니다. 군대생

활 중 1968년도에 무장공비 김신조로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 동안도 완전무장을 해야 했습니다. 제대가 가까우면 훈련도 빼주고 영내 밖도 자주 나가도록 배려를 하는 시절이었는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군대 기간도 길어져 36개월이나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늘그막에 복병을 만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지독한 복병 말입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간첩은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심지어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속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몸 안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은 까맣게 모릅니다. 전혀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스스럼없이 전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간교한 작자인가요? 마치 사탄의 하는 행동 같습니다.

이놈을 막기 위해 무장해야 하는 부류가 많습니다. 임마개를 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핸드폰을 켜집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끔 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것저것 챙기다가 카페를 마시러 카페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마스크를 빼 먹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런 거주장스러운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올런지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카페를 마시러 들어가고 맛있는 식당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건가요? 어제(6월19일) 이태리 감염자는 251명, 사망 47명입니다.

locielo88@naver.com

푸/른/초/장

이창종 목사

(뉴욕동성교회)



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뽑으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포로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임을 알고 예배를 최우선

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구원한 목적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 안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분이므로 이 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하고는 예배에 관해 질문합니다.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천대를 받았습니. 왜냐하면,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 혼혈정책으로 유대인의 순수혈통을 상실하고 신앙도 변질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파도람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하고 따로 그리스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올바른 예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며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고 절하고 음식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도와주셔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9면으로 계속)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까?

1. 예배가 곧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

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 그러므로 예배를 최우선시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인생의 목적인 참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을 앞자리에 두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 자신의 일이 제일 우선이 되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뒷전입니다. 내 일 다 한 후,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

지만, 참된 예배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히) 아바드, “섬긴다”는 뜻입니다. (헬) “프로스키네” 몸을 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 worship,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

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 제2 계명이 하나님 대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행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대하신 능력으로 큰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도 세워 예

으로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둘째, 예배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은 우리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렘1:5-6)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

에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천국백성이 되게 하신 것 역시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라십니다.

둘째, 예배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여 항상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계속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다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 부터도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으러 왔는데 그곳에서

“지금은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24절

발병 숫자에서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환자가 발생한 곳에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 사투를 벌일 듯 하여 위로 겸 연락을 드렸는데, 의외로 안정이 되었다고 한다. 여전히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직 대기 중인데 안정이라니? 그분의 말이 의미는 '환자의 숫자가 많아도, 비록 전쟁통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조심스런 방역 속에 일상의 삶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상황만 피할 수 있다면 별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배상실, 교회의 무기력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다. 목사님의 조금 실망스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회의 안정은 세상의 안정에 비해 속도감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말씀이었다. 세상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동안 짚지 않은

지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세상에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는 것을 보면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났음을 본다. 오랜 시간 현장에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 드러진 예배가 예배의 또 다른 정형으로 굳혀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많다는 것이다.

담대한 외침, 위기중 위기

이제는 담대하게 교회로 오라고 외쳐야 한다. 코로나 백신 개발의 소식이 요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방역, 최선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도록 강권할 때가 되었다. 연로하신 분들과 약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교회이라고 외쳐야 한다. 그러면 듣는 자가 있지 않겠는가? 어린 자녀로 인해 두렵고 힘이 들면 주일에 차를 가지고 파킹장에 와서 안전한 공간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라도 실시간 영상예배를

것임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한 육신에 조건에 묶이게 되면 모든 일들이 핑계 거리에 불과해지고 마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축복하는 예배와 말씀마저도 한갓 귀찮은 것일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들 중에 종교중독에 빠진 이들이 많다고 비판하지 않을 런지.

성경의 교훈

열왕기의 역사들을 보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라. 저들 가운데 훌륭한 왕들이 몇 명되지 않는다. 40여명의 왕들 중에서 고작 솔로몬 이후 '요시아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사' 정도의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이 땅의 왕이지만 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준이 무엇인가? 저들이 통치할 때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서 왕들의 선과 악은 오직 한 가지 예배를 향한 자세로 구분된다. 예배가 온전한 왕, 주의 전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

빛의 영광과 소금의 품격을 세상 앞에 던져버린다. 금송아지 앞에 가서 넘죽 앞드려 절하며, 그 입술에는 지질거리는 소리가 가득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금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 범죄의 죄악 앞에 쓰러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회복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비극이다.

영혼의 은혜가 부재한 곳에 기쁨진 땅에서 나고 자라는 탐스런 작물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영광을 세상에 빼앗기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죄악의 씨앗이 뿌려진 곳을, 새롭게 기쁨함 없이 선한 열매를 달아주지는 않으시기 때문이다.

북한이 일제 35년 분단 70년의 일을 지나면서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든 땅에 매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분명한 이유 중 한 가지는 1938년 27회 조선장로교 총회가 열린 평양에서의 신사참배 결의에 있다.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그 땅을 온전케 하시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민족의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가 아닌 허구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요즘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죽는 사람이 많이 졌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하늘의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잠언 15장 24절에 스올(음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곳은 지옥인가요? 아니면 예수 재림 때의 심판 때까지 어떤 대기소인가요? 지옥에 대해 성경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가디나의 전 권사

A: 지난 호에 예수 믿은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하늘의 천국(낙원)인 삼중천으로 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쉬며 영생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적인 낙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음부(Sheol)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이 스올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보면 천국(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의 밑이 분명하며 피할 곳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눅16:23, 26). 가뭇 유다는 예수를 팔고 누우치며 자살했을 때 자기의 곳으로 즉 멸망의 곳으로 갔습니다(행1:25). 음부(Sheol)는 구약에서 60번 이상 나오는 단어로 구약 헬라어 번역(70인경)에서는 하데스(hades)로 번역이 됩니다. 고통과 불꽃의 장소입니다(눅16:23, 24). 스올은 죽은 사람이 내려가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창44:29, 31)이기도 하지만 스올은 악인들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이 훌륭한 번역입니다. 헨드릭슨이 쓴 "종말론"이란 책을 보면 지옥(Hell)이란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신약 원어상으로 3가지 단어로

불신자 죽은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다
예수재림 후 몸과 영혼이 둘째사망인 지옥 불못에 떨어져

가 사용됩니다. 하데스(Hades ,10회), 게헨나(Gehenna, 12회), 탈타루스(Tartarus, 1회) 사용됩니다. 하데스와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하데스라고 불리지는 때는 악인들이 가는 영혼들의 지옥 거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게헨나라고 불리어지는 때는 일반적으로 예수재림 후 심판 날 후 악인들의 몸과 영혼이 가서 거할 지옥의 처소를 말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1)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살후1:9).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의 장소이다. 2)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3)불못(Lake of fire)입니다. 지옥은 불, 혹은 불꽃의 장소입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 불은 영원무궁토록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4)어둠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바깥, 어둠의 곳입니다(마8:12, 22:13). 그곳은 약한 영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아래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유다서6절). "캄캄한 흑암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유리하는 별들을 위하여 영원히 예비되어 있습니다(유13절).

그래서 불신자들의 죽은 영혼은 하데스 즉 지옥으로 가서 정신적인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 재림 후에는 몸과 영혼이 함께 둘째 사망인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계20:14-15).

에는 그 어떤 것도 바른 것을 세울 수 없다. 공의의 상실이 세상에 점점 더 강력하게 전파될 따름이다.

예배와 사역의 회복

코로나의 특이점은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염병이라는 사실이다. 전쟁과 재난 때에는 어 려울수록 대통령부터 교회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했다. 회 회를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했 다.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정 도를 지났던 것이다. 그러나 코 로나바이러스는 누구를 막론하 고 모이지 않게 만드는, 사단이 가장 좋아할 일들을 벌이고 있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예배하고 사역하는 교회

-상실과 회복, 삶의 승리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역의 동력, 영적인 힘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이것은 예견된 일이다. 마치 갑자기 사역지를 잃고 무임목사로 시간을 지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의 무기력함을 생각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코로나로 사역이 멈추어졌을 때, 그동안 교회사역으로 소홀했던 집안일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전의 힘든 사역으로 인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웠던 뒷마당 텃밭을 만드는 것이나, 운동 겸 집을 수리하는 사진들을 주고받으며, 더 좋은 핸드 드릴 등의 손 기계류는 어떻게 구입하는가에 대한 정보의 교환도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제한적일 때 가능한 것이지, 목회자가 교회사역을 제쳐두고 계속해서 할 일은 아니기에, 어느 순간 세상은 적응되어 가는데 교회사역들은 그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무기력함에 빠져들었음을 본다.

이민교회 뿐 아니라 한국의 소식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한국은 큰 팬데믹의 광풍은 지나가고 구체적인 숫자를 관리하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탄식소리가 들려온다. 예배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고, 예배를 쪼개고 나누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역조치들을 취하였음에도, 도무지 잘 나타나

교회에서 드리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삶의 필요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주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렇게 선별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위기가 많다. 그러나 위기중의 최고의 위기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위기이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교회의 예배가 안정이 되어있지 못하면, 세상의 평안과 안정도 잠시 지나가는 제한적인 일에 불과하다. 광야 같은 인생의 승리도 성전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승리함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배의 위기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삶의 근본을 흔들어버릴 것이다. 구약의 왕들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칭하여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의 상실'로 인한 영적각각의 실종,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이다. 돌아오면 산다는 것이다. 예배하면 산다는 것이다.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팬소 예배를 강조한 교회에서는 평화로울 때에 전쟁을 연습하라는 말씀처럼 이 어려움에도 선전을 하고 있음을 본다. 정말 코로나 방역의 문제이면 차를 가지고 주차장(Drive-in Worship)에 와서라도 주의 전을 바라보며 예배하지 않겠는가? 그 예배자의 영혼을 살아가신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축복하여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건강의 조건들로 인해 성전까지 들어오지 못하여도 그 마음중심을 돌아봐주시

고, 인간적인 생각들로 우상을 섬기기에 열심이었던 왕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여름사역을 통해 매일 한권씩 66일 동안 성경을 강 의하고 읽는 일을 하고 있다. 구약성경, 선지자의 피 끓는 외침을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예배회복을 위한 목회사 들의 외침으로 듣게 된다. 선지 자들의 한 가지 사명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회개가 회복이며 축복이다.'

상실과 회복

사랑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에만 성실하신 분이 아니시다. 공의에도 성실하셔서 회복을 목표로 나아갈지라도 반드시 죄악을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이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잘못하고 있으며 이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하다면, 혹은 들을 곳이 없다면, 들어도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인터넷 방송의 스스로 선택지만을 찾는다면 회복의 길은 요원한 것이다. 스스로 성경을 읽지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한다. 교훈과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며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의 감격을 상실한 성도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감각이 없기에, 자신에 주어진 선물 같은

인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김일성을 선택한 것이다. 공동체가 그런 지도자를 선택했다면 그 영향은 그 백성과 땅에 그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택한 지도자에 의해 선택의 책임을 요구받는 것이다.

예배와 삶의 성패

예배가 흥왕하고 영적인 은혜가 넘칠 때는 세상에도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을 생각해보면 하늘의 기쁨이 땅의 즐거움이 된다. 영혼의 감격이 육신의 삶을 기쁨지게 하는 것이다. 인생은 실수가 있다. 연약함이 있다. 그러므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를 새롭게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와 회복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삶을 새롭게 회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은 삶의 피폐함이 증가되고, 세상의 정의를 무너뜨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를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겨나 포악과 독재를 실행하게 된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여념이 없게 된다. 하나님 말씀의 다름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연, 비그리스도인들만 죄를 범 할까? 그렇지 않다. 회개에 실패한 성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 지라도 영혼의 무너진 기초위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사나나(SANANA)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이며 인종적으로 300여 부족이 상되는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무리들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회교도들이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호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한 땅 사이의 해상항로를 터주는 동남



아 지역에 위치하는데 이들 섬들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고 있다. 사나나는 몰루카(또는 향료의 섬)에 있는 솔라 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련의 섬들 구성은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하며 대부분이 섬들은 술웨시와 뉴기니아 그리고 티모르와 필리핀 사이를 포함한다. 몰루카의 북쪽 군도의 구성은 할마헤라(Halmahera) 몰루카의 가장 큰 섬, 모로타이, 터네이트, 티도레, 마키안, 바칸(바전), 오비, 그리고 술라 섬들이다. 중앙부와 남쪽섬들은 부루, 세람, 맘본, 반

다군도, 카이(이람), 아루, 타니바, 바바르 그리고 워타르다.

삶의 모습

북쪽 몰루카스의 정향나무와 섬 중앙부의 육두구(열대 상록수 열매) 향료가 유럽인들이 향료의 섬을 익히 알기 오래전에 아시아에서 무역상거래가 있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1511년에 도착하면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싸움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들이 이때 희생됐다. 화란이 승리하면서 많은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19세기 말 향료거래가 급히 감소되자 몰루카스 섬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

인도네시아 문화는 다원적인 문명으로 혼합되었다. 힌두교와 인도의 불교 인도네시아인들의 생활에 심오하게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 나라의 건축과 조각에 강하게 발자국을 남겼다. 인도네시아에 아랍의 영향은 13세기 때부터 주로 회교의 가르침을 통해 활성화 됐다.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화란사람들의 유입으로 이 섬 나라 사람들은 다국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는 두 번의 몬순 계절(11월에서 3월까지 우기와 6월에서 10월까지 건기)을 포함하는 열대 기후를 갖는다. 몬순 계절은 온화하고 인도네시아의 주요한 화산도양은 곡물의 성장에 이상적이고 숲이 이 나라의 2/3를 덮을 만큼 번창한다.

몰루카는 지진이 빈번하며 대부분 섬들이 산악지대다. 몇 개의 섬들 특히 터네이트와 반다 섬은 활화산을 갖고 있다. 타니바와 아루 섬을 이루는 군도는 지형이 낮고 높으로 돼있다. 몰루카는 열

대기후이고 강우량이 지역에 따라 년중 800에서 1500인치나 되는 다변적이다. 어떤 지역은 이전에 항상 비로 인해 이 섬의 대부분 숲으로 덮여있던 곳을 광지로 해방된 노지가 있고 해변가는 홍수림으로 주변을 두른 높지가 있다.

음식은 사냥, 낚시, 그리고 사고("Sage" 아자류 나무)의 전분을 모아 획득한다. 코코넛은 모든 곳에서 자란다. 주수출품은 코프라(코프라 기름을 내는 코코넛 내용물을 건조한 것), 숲에서 난 산물, 향료와 어류다.

신앙

기독교와 회교가 이곳 해안가 지방에서는 주요한 신앙인데 이들의 믿음중심은 정령술(비인격체에 영이 깃들여 있음)을 믿음

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회교가 이 나라의 가장 지배적인 신앙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인도네시아 헌법에 보장되었다. 사나나는 오직 15명의 기독교 신자가 이들 중에 있을 뿐 실제로 모두 회교도들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사나나는 그들의 현지어로 번역된 기독교 제원이 전무한 상태다. 최근 이들 안에서 사역하는 선교 단체도 없다.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과 예수영화가 번역돼야 하며, 뜨거운 중보기도와 이러한 벽지 섬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 지역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줄 선교사 파송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남침례교, 첫 흑인 실행위 의장 선출

미국 남침례교(SBC) 총회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실행위위원회 의장이 나왔다.



남침례교 교단자인 뱀티스트 프레스는 16일 최근 화상으로 진행된 실행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캔자스주 메리디안 침례교회의 롤랜드 슬레이드(사진) 목사를 의장으로 뽑았다고 전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관계자는 22일 "백인 중심의 보수적 교단인 남침례교에서 2012년 첫 흑인 총회장에 이어 의장까지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남침례교는 8년 전 프레드 루터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슬레이드 목사는 뱀티스트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겐) 이 자리에 앉을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침례교 목회자들은 슬레이드 목사의 의장 선출이 역사적인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지아주 임마누엘침례교회의 마이크 스톤 목사는 "인종적 불평등과 경찰관의 잔인함으로 시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이때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남침례교 총회장인 JD 그리어 목사와 슬레이드 목사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행위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흑인사살' 백인경찰, '최고형 사형'

조지아주 애틀랜타 남동부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체포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흑인 청년에게 총을 쏘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게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로이터 통신과 CNN방송 등은 지난 12일 애틀랜타 패스트푸드 매장 앞에서 달아나는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27)에게 총을 쏜 개럿 볼프 경관에게 검찰이 중죄 모살(Felony murder) 등 11개 혐의를 적용한다고 17일 보도했다. 중죄 모살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중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볼프 경관은 체포 과정에서 이 흑인을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브룩스는 음주측정 전까지 경찰에 협조하는 듯하다가 측정에서 단속 기준에 걸리자 체포에 저항하고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에 볼프 경관은 브룩스에게 총을 쏘고 두 발을 몸에 맞은 그는 과다출혈 및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브룩스는 5.5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총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경관 데빈 브로스넌은 브룩스가 총격의 고통으로 사투를 벌일 때 어깨를 짓밟고 선 것으로 전해져 그에게도 가중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브로스넌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동료인 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계획인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볼프 경관은 총격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해임됐으며 브로스넌은 휴직에 들어갔다.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흑인 브룩스의 사망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남

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맞물려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불을 지폈다.

무서워 사표 던지는 美 경찰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벌어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 사태 속에 미국 경찰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에 항의하는 일부 여론이 경찰 개혁과 예산 지원 중단을 외치자 회의감을 호소하며 아예 일을 그만뒀 버리는 것이다.

17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 발발 이후 최고 7명의 경찰관이 사퇴했다. 여기에 현재 6명 이상의 경찰관이 추가로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 헨리 햄버는 미니애폴리스 경찰 부국장은 AP통신에 "일부는 사직서를 내지도 않고 결근했다. 근무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밤 또 다른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가 경찰관 총에 맞아 숨진 일이 있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는 이번달에만 8명의 경찰관이 사표를 냈다. 애틀랜타 경찰 측은 "우리 인사 기록을 보면 올해 들어 매달 2-6명의 경찰관이 사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폭력 시위에 대한 공포로 진압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경찰들도 늘고 있다. 플로리다주 남부의 한 도시에서는 특수기동대(SWAT) 소속 경찰관 10명이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최소한의 장비에 훈련도 부족한 상태"라며 "우리들의 전술이 정치화되는 것에 압박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또 경찰 지휘부가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동참해 시위대와 같이 무릎을 꿇은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과 정서가 시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뉴욕주 버펄로에서는 비상대응팀 소속 경찰관 57명 전원이 사임계를 냈다. 지난 4일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 2명이 7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린 일로 무급 정직 징계를 받아 이에 반박해 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이다. 또 지난 15일 뉴욕 한 햄버거 가게에서 경찰관 3명이 표백제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해 한 증오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신변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 흑인 이미지 잇단 재검토

미국 기업들이 흑인 로고로 들어간 브랜드를 없애거나 소수인종의 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인종차별적 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기업 문화에 대한 반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시리얼·음료 회사인 웨이커오즈 커피퍼니가 흑인 여성의 이미지를 로고로 쓰던 '앤트 제미마' 브랜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웨이커는 팬케이크·시럽 브랜드인 앤트 제미마를 1889년부터 130여년간 가지고 있었다. 브랜드 로고인 중년의 흑인 여성은 '늙은 제미마 아줌마'라는 노래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제미마 아줌마는 180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흑인들의 공연 '민스트럴 쇼'에 등장한 유모 캐릭터다. 크리스틴 크로플 케이커 북미마케팅총괄은 브랜드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 "앤트 제미마는 인종차별적 편견을 지닌 캐릭터"라면서 "수년간 브랜드를 진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왔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흑인인 리체 리처드슨 코넬대 교수는 2015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앤트 제미마 로고는) 자신의 자녀는 소홀히 한 채 백인 주인공의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는 현실적이고 순종적인 하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곡물 가공식품 브랜드 '영글 벤스'를 소유한 기업 마스도 해당 브랜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영글 벤스는 1946년부터 나비넥타이를 맨 흑인 남성 노인의 이미지를 로고로 써왔다. 영글 벤스라는 이름도 당시 텍사스 지역에서 쌀 농사를 짓던 흑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마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은 영글 벤스 브랜드를 진화시킬 때"라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브랜드 로고와 정체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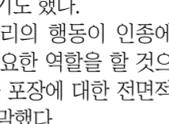
미국이 또 다른 유명 식품 기업인 코나그라도 동참했다. 이 회사의 시럽 브랜드인 '미스즈 버터위스'는 1960년대 초부터 여성의 실루엣을 한 투명한 용기를 쓰고 있는데 시럽을 채우면 갈색이 된다. 제품의 TV 광고에서 갈색 시럽병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코나그라 관계자는 "우리의 행동이 인종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브랜드와 포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의 대표 및 임원 비율을 2025년까지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中, 홍콩보안법 처리 연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9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회의 기간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공직인원징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 등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을 중국 당국이 통과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 기간 심의된 내용을 보면 대략적인 홍콩보안법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상무위는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은 또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 논의된 홍콩보안법 심의 내용을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을 담고 있다.

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며 "세부적으로는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

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이다"고 전했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를 말한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체제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집행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홍콩에 중국 정부의 '안보 기관'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로나 하루 18만3020명 '최다 확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다. 최근 미국과 중남미, 서남아시아 등에서 코로나19 봉쇄령을 완화 또는 해제하면서 감염자 수가 다시 치솟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1일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18만30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 세계의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일일 확진자 수는 브라질이 5만47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만66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도(1만5400명)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WHO가 이날까지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70만 8008명, 사망자 수는 46만1715명이다.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전 세계 신규 사망자 수는 4743명으로 그 중 3분의 2가량은 남북미 대륙에서 발생했다.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특히 브라질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누적 사망자 수도 5만명을 향해 가고 있다.

브라질에선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3000명 이상씩 늘고, 사망자 수도 매일 1200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레스토랑과 상점 등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확진자 수가 곧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겔 라고 브라질 보건정책연구원장은 "브라질은 코로나19의 주요 희생국이 될 것"이라면서 "브라질에는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CNN방송은 "워싱턴대의 추계 모델에 따르면 8월에는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세계 최다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면서 "추계 모델은 또 향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브라질의 사망자 수가 10만명으로 지금의 두 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선 봉쇄조치가 먼저 해제된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주 중심으로 20~30대 감염자가 늘어 보건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48세였다.

확진자 연령대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 가거나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목된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몇몇 카운티에서 지난주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30세 이하였다"면서 "최근의 현충일 파티나 모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보건당국도 지난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21~30세 확진자가 1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보건환경통제국 자문위원인 브래넬 트래슬러 박사는 "이같은 수치는 젊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0. 박 선(1886-?)

1918년 9월 12일에 트레이시 로즈가 작성한 제 1차 세계대전 징집 서류에 따르면 박 선(Sun Park)은 1886년 5월 27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의 친척 가운데 평안남도 강서군에 박재K가 있었는데 박 선이 태어난 곳이 바로 평안남도 강서군이 아닌가 싶다. 본 서류에는 그의 인상착의를 소개하고 있다. 상중하에서 그의 키는 중에 해당했고, 체구는 역시 중에 해당했다. 그는 상항을 통해 도미하여 나성을 거쳐업 랜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업랜드는 나성에서 보면 동쪽으로 40마일이 미쳐 되지 못하는 곳이다.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졸업생 위로회가 있었다. 이날 박 선이 축사했다. 전체 절차는 찬미와 기도 후 광림대의 개회사, 회중의 국가, 박 선과 지성진과 백인 패턴, 스투와 부인 등 4명의 축사, 미국 여학생 단체의 참가, 길턴어의 연설, 임보패의 참가, 이원석의 정년 연설, 히스킨스 부인의 참가, 이순복의 정년 연설, 합킨쓰와 강영각의 악기 연주, 이종해의 소설, 합킨쓰와 강영승과 강영각의 음악 과녁, 광림대의 본소 장래 정황 그리고 군악대의 군안 후 폐회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업랜드의 임준기가 딸을 낳아 또 다른 경사를 맞았다.

업랜드 한인장로교회 전도사

박 선은 거주 한인장로교회를 담당한 순행 전도목사인 민찬호의 지도하에 업랜드 한인장로교회를 목회하는 전도사였다. 그러나 그는 한인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목사라고 불렸다.

1915년 4월에 업랜드 제일장로교회에서 10년 동안 한인 노동자와 한인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스트와 부인에게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업랜드뿐만 아니라 인근 클레몬트의 한인들과 6, 70명의 지역 백인이 참석했으니 약 100명이 모인 듯싶다. 본 감사예배의 순서 중 박 선이 찬사를 담당했다. 본 감사예배는 할렐루야로 일동의 개회 찬미에 이어 백인 목사 알리슨이 기도한 후 박 선 목사의 찬사 순서가 있었다. 그의 찬사 후에 민찬호 부인, 강영승, 이종해, 임보패 등의 독창이 있었으며, 픽슨 부인, 쿡 부인, 본 예배의 주인공인 스트와 부인과 리 부인의 4중창이 있었으며, 강영각의 나팔 독주가 있었고, 팜어 여사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광림대, 이종희, 백인 헌트 목사, 스토운 목사, 스트와 부인, 사전트의 연설이 있었다. 감사예배 이후 여흥이 이어졌다.

1915년 6월은 두 번의 경사가 있었다. 그달 5일 하오 7시 30분에 클레몬트 한인양성소에서 금번 하기에 졸업한 본 양성소 학생 이원석과 이순복 등 두 명의 학생을 위하여 내외 빈객

나성 한인장로교회 전도사

국민회 나성지방회가 1917년 8월 29일에 나성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한인이 모여 그날 밤 8시 30분에 국

늘남의 전도사로 재직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다뉴바 국어학교 교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박 선이 제1차 세계대전 징집서류를 제출하던 그날 중국 산둥 선교사였던 사병순 목사도 제1차 세계대전 징집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도 다뉴바 목사라고 소개했다. 사병순은 다뉴바 한인장로교회의 안수 받은 목사였고, 박 선은 사병순과 동역하는 전도사로 보면 될 것이다. 거주 한인장로교회 순행 전도목사 민찬호의 지도하에 이들 목사와 전도사가 다뉴바 한인장로교회를 섬겼다고 보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1918년 10월 12일에 개최한 다뉴바 지방회의 보고에 한국 어 학교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1반에 6명, 2반에 4명, 3반에 3명 총 13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과목은 국문 첨경, 수산선, 조학 절경, 대한역사, 습지, 작문, 찬미 그리고 편지법 등 8과목이었다. 등록한 이들 13명의 학생이 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것이다.

다뉴바 지방회 구제원(한인 위생국) 장덕옥의 보고에 의하면 1919년 2월 다뉴바에 스페니시독감에 걸려 고생한 자가 61명이었고, 사망한 자가 2명이었다. 당시 한 집에 여러 명의 한인이 거주하였는데 한 집에서 7명이 앓은 집이 한 집이었고, 6명이 앓은 집이 한 집이었고, 5명이 앓은 집이 세 집이었고, 2명이 앓은 집이



박 선의 영문 날인 (제1차 세계대전 징집서류, 1918년)

경축회를 열기로 준비할 새 농장에서 일하던 동포들이 혹은 낫을 던지고 들어오며 혹은 호미를 던지고... 독립 경축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잠시 동안에 내외국인의 모임이 250여 명이라... 땅중을 천지가 진동하도록 놓으며 일변 경축예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더라.”

독립경축 행사는 개회, 국가, 김성권의 기도, 신한국 만세, 취지 설명, 참가, 박영로의 연설, 한영숙의 참가, 이원석의 참가, 연설, 국어학교 생도의 참가 그리고 폐식으로 이어졌다. 이날의 독립 경축식에 박 선도 참석했을 것이다.

다뉴바 한인교회 주일학교 교사 중에 백인 란들리가 있었다. 그가 친한을 살피려고 동방으로 여행하게 되었는데 본 교회 교인 일동이 다뉴바장로교회의 백인 목사와 교인들을 초청하여 1919년 5월 5일 저녁 8시 30분에 그의 전별회로 모였다. 이는 한승운 목사와 박 선 전도사의 노력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란들리는 한국인의 정형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의 삼일독립만세운동에 동정을 표하고 스스로 백인에게 한국의 정의를 힘써 증명하겠다고 하였다 한다.

다뉴바 한인장로교회의 교인 임성택의 가정에 딸 임제시가 1919년 5월 에 다뉴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아들 임요한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졸업 경사가 있었다. 본 교회는 그들의 근면과 열심 수확에 찬사를 보냈고 다뉴바 지방회와 다뉴바 부인회와 함께 졸업생 경하식을 거행했다. 이날 박 선이 권설(권면)을 담당했다. 개회에 이어 한승운 목사가 기도하

의 취지 설명, 이원석의 독창, 임공선의 연설, 김승현의 바이올린 독주, 김진성의 감사담, 학생들의 참가, 이도선의 연설, 허순복과 허순택의 참가, 이범영의 작별가, 한상호의 테너 솔로, 임공선 모친의 '성경하면 섭섭이 없소.' 강영각의 군가 나팔 독주 그리고 일동의 작별가로 폐회했다. 이들 세 명의 자원 입대자는 그달 16일에 다뉴바를 떠나 상항 훈련소로 갔는데 그들은 "장차 대한독립군의 자격을 예비하여 기회를 지어 시베리아, 만주에서부터 왜적과 싸워 우리 강산에서 외적을 몰아 쫓을 결심"이었다.

다뉴바에 '포도 따르 오소'라는 광고가 있던 그해 7월 8일에 다뉴바 하기 학생회장 김창만이 신한민보에 다뉴바 하기 학생회 소집 광고를 냈다. 그런데 이 광고에 박 선의 주소인 다뉴바 사서함 505를 소개했다. "국가 운명이 가장 위급한 때라 고생과 적막에 싸였던 학우들로 하여금 사랑과 뜨거운 정의를 나누게 하려는 동시에 국가 대사에 원조적 방침을 동수하기 위하여" 1919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네 회의와 두 연극회가 있었다. 애국회는 16일 오전 11시에 1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 교회에서 박 선의 사회로 있었다. 주석의 개회사에 이어 태극기와 성조의 게양, 일동 국가 합창,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한상호의 만세, 기념사전, 국가합창, 사제필 박사의 축하문 낭독, 중앙총회의 국기 전개사, 흥사단의 축전낭독, 국민회 청년 혈성단 대표 김정진의 축사, 다뉴바 지방회장의 축사, 북미총회 학무원 이삼을 목사의 연설 '애국 국민이 됩시다' 등이 있었다.

그해 8월 8일 하오 8시에 본 교회에서 북미한인교회 공의회가 있었다. 본 공의회 회장에 민찬호 목사가였고, 서기에 한승군 목사가였다. 박 선은 북미한인교회 공의회가 모인 다뉴바 한인장로교회 전도사였으므로 뒤차다 끼리는 그의 몫이었을 것이다.

장인환 의사는 1908년 3월 대한제국 외교고문임에도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을 노략한 달할 W. 스티븐슨을 저격하여 사망케 함으로 일급 모살혐의로 투옥되었다. 그의 모범적 수형 생활과 국민회의 석방운동으로 10년 만인 1919년 1월 10일 장의사는 가석방되었다. 그해 8월에 장의사를 도와준 스미트와 맥코믹에게 감사 전보를 보냈는데, 이 감사 전보에 박 선이 국민회 다뉴바 지방회장 이점영과 한인부인 애국단장 한영숙과 함께 서명하였다.

박 선은 다뉴바 한인장로교회의 전도사로서 제1차 세계대전 징집서류를 작성한 1918년 9월부터 장의원과 스미트와 맥코믹에게 감사 전보를 보낸 1919년 8월까지 약 1년 본 교회를 섬겼는데 아마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 선의 이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damien.sohn@gmail.com

1915년 업랜드 한인장로교회, 1917년 나성 한인장로교회 전도사 사역 1918년 9월 1차 대전 징집서류작성, 1년간 다뉴바 한인장로교회 사역

치기념일을 개최했다. 이날 박 선은 전도사로 소개되었는데 마지막 순서인 폐회 기도를 담당했다. 국가로 개회한 국치기념일의 순서는 아래와 같았다. 회장 이영수의 취지 설명, 김태 부인의 '목적을 다하세' 독창, 박순애 부인의 '우리의 감사' 연설, 황사근의 '한반도야' 독창, 국지적립금 기부, 서명옥 부인의 '목수회포가' 독창, 민찬호 목사의 연설, 정동업의 국지적립금 보고, 부인 참가대의 '고국 사모' 찬양, 연설, 폐회기도였다. 이날 부인 참가대와 연설이 가장 특색이 있어 경청했다고 한다.

다뉴바 한인장로교회 전도사

박 선은 1917년이나 1918년에 한인 노동주선인 김병구에 의해 다뉴바로 이주하여 농장 노동자로 활동했다. 1918년 9월 12일에 제출한 제1차 세계대전 징집서류에서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오

두 집이었다. 이들 집을 위하여 심방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기도하였을 박 선 전도사의 모습이 상상된다.

1919년 2월 8일 다뉴바지방회 통상회 보고에 따르면 서기와 법무원과 학무원 담당자가 각각 사면하여 다른 사람으로 선출하였다. 이중 학무원 사병순 대신에 김관유로 대체되었다. 사병순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한승군이 목사로 추대되었을 것이다. 박 선은 전도사로 계속 본 교회를 섬겼다.

그해 3월 1일 삼일만세운동의 소식을 듣고 성대하게 독립을 경축했다. 당시 신한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다뉴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중앙 총회장 안창호씨의 전보를 받고... 기쁨과 슬픔이 어울려 어떤 동포는 취하듯이 정신을 진정치 못하며, 어떤 동포는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아무 말도 없이 일변으로 6, 7인 동포들은 자행거(자전거)를 타고 농장으로 순행하며 부근 동포들 모아 독립

였고, 지방회장 이범영이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김승현이 바이올린 독주를 하였고, 한시대가 연설을 하였으며, 이원석이 노래를 하였고, 부인회 회장 김원신이 사상을 한 후 박 선의 권면이 있었다. 박 선의 권면 이후 중학교 졸업생 임제시가 답사를 하였고 이어서 임제시가 참가를 불렀으며, 그리고 국가를 부름으로 폐회했다. 그리고 임성택은 새로 마련한 주백에서 한인 100여 명을 초대하여 만찬회를 벌였다.

그해 7월 정봉화가 추행으로 쫓겨났고, 오태선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다뉴바 한인 사회는 뒤숭숭한 달이었지만, 한미회는 일도 있었다. 상무 정진으로 무장한 임공선, 김진성 그리고 이도신이 1차 세계대전에 자원하여 입대하여 그달에 다뉴바 한인장로교회에서 한인 100여 명이 모여 전별회가 있었다. 찬송을 부른 후 박 선이 기도했다. 박 선의 기도 이후 이순기 주석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사역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교회: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오전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계속해서 흥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 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박성경,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2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6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윌셔에 캠퍼스)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모요일강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반) 주일: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6:00(토)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A.A.복음전도교회 협동목사) 성서사역 (월-금) 오전 10:00-10:30AM 사역장: 1. 영성사역 2. 영성사역 3. 가정사역 4. 사역사역 4. 사역사역 http://www.elfisfamily.org / Tel: (714)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역원: 오전 5:30(월-토)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문)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종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찬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wh.com 2426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토 목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전 1:00 교무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일예배: 오후 7:30(토) 수요일: 여성성경침례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im@bi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865-0009 Fax: (213)865-0000 N.Y.: Tel: (917)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9)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4)



III. 내용 요약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를 분석해보면 설교란 대언의 기술이다(1장), 2장 설교의 본질과 주제, 3장 설교의 내용(범위와 권위), 4장 성경 해석을 위한 특별한 규칙, 5장 성경 해석을 위한 일반적 규칙, 6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함(교리분석), 7장 청중의 상태에 따른 적용, 8장 적용의 종류, 9장 기억술의 사용에 대해, 10장 말씀의 선포(전달), 11장 설교자의 공적인 기도로 되어 있다.

1장 대언의 기술(설교의 정의)

퍼킨스는 머리말에서 설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설교관이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설교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설교의 원천도 설교의 내용도 설교의 목적도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오늘날 설교의 본질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은 설교를 단순히 자신의 신념이나 기독교 철학을 전하는 통로로 삼거나 도덕적 훈계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처럼 여기는 오류를 범한다. 설교자로

다. 설교의 주제는 오직 성경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성경은 설교의 유일한 주제이며, 설교자가 끊임없이 일해야 할 유일한 말이다.” 설교자는 오직 성경 66권을 설교의 유일한 주제로 삼아야 한다. 성경은 완전하여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 수 없고, 성경은 순결하여 실수나 속임이 없다. 성경은 영원하여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다 이루어진다. 또한 성경의 효력은 인간의 영을 깨우는 능력을 가지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참소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묶는다. 퍼킨스가 제시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이다.

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르, 욥기까지 모두 15권으로 분류한다. 교리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4권으로,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모두 예언서로 분류한다. 신약성경은 역사서와 서신서 둘로 나누어 역사서는 4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는 나머지 서신서 전부를 포함한다.

퍼킨스는 이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 논하는데, 성경의 내적 증거와 로마가톨릭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그 외의 증거들에 대해 9가지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로마가톨릭의 입장과 관련하여 퍼킨스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태현 교수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것에 대하여 퍼킨스는 교회는 단지 성경에 따라 참된 정경을 시험하고 승인할 수 있는 봉사적(ministerial) 권위만을 지닐 뿐, 정경성을 증명하거나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성경에 대하여 영원히 동의하며, 이것은 구약성경 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

그리스도중심적 설교관... 설교주제는 오직 성경 교회 권위가 성경 권위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

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prophecy)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설교를 “설교(prophecy)는 설교자(prophet)에 의한 엄숙한 공적 담화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퍼킨스는 설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prophecy)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설교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 본질에 있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임을 빠뜨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될 것이다. 이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 14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한다. 그는 바울사도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관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부름 받은 사람마다 설교가 그 본질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그의 분명한 설교의 정의는 현시대의 설교자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다.

더불어 그는 ‘예언’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제시한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대언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두 가지 의무인데 곧 설교와 기도이다. 따라서 모든 설교자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그분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간청하는 일을 해야 한다.

2장 하나님의 말씀(성경의 본질과 주제)

그는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고 한

그러므로 설교자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인간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책이라는 확신을 할 때만 설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퍼킨스는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거나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 즉, 설교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성경의 본질과 주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3장 성경의 내용(성경의 범위와 권위)

그는 구약성경을 그 성격상 역사서, 교리서, 예언서로 나눈다.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후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

님의 말씀이 말겨졌기 때문이며(롬3:2), 그것은 신약성경과 교회에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성경 밖의 증거까지도 언급하면서, 이교도 사상가들, 심지어 신앙의 적대자들도 부분적으로 동의함을 말한다. 호머, 플라톤, 요세푸스, 락탄티우스, 키케로, 버질, 수토니우스, 타키투스, 폴리니와 같은 사람들까지 열거한다.

그 외에도 아홉 가지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증거를 확증하고 있다. 덧붙여서 오직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며, 토빗서, 므낫세의 기도서, 유딧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서신서, 다니엘 부록서, 에스라 3서와 4서, 에스테르 부록서, 마카비 1서와 2서, 지혜서, 그리고 집회서는 결코 정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존재에 가까워지는 삶

우리는 살면서 더 단순하고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른 심령과 정확한 말씀이 합해져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정보가 많고 명석하면 지혜롭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바람처럼 사는 자가 아닐까. 존재에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자이다. 바람처럼 산다는 것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막힘이 없이 삶을 관통해 나가는 것이라.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오늘을 주신 그분과 끊임없이 관계하며 그 속에서 삶이 주는 선물들을 찾아 누리며 사는 게 진짜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살면서 우린 어쩌면 더 좋고 사랑스런 순간보다,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깊은 자국처럼 가슴에 새겨져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행 불행을 좌우하는데... 기억과 기대로부터 벗어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머쥘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내가 좋아하는 나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더 많이 가슴이 채워지고 머리가 비워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좀 더 존재에 가까운 삶으로 말이다. 그것은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한 실체로 내 삶 한복판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리라.

언젠가 보화예배(월요 여성예배)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린 더 많이 낡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벗기듯,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뿐 아니라 두텁게 콩콩 싸고 있던 우리 마음도 관계도 하나씩 벗겨나가야 그야말로 존재에 가까운 삶으로서 자유로운 영혼을 누리게 되리라고...

늘 덩벙대고 실수투성이인 나는 가족과 성도님들께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덜해 보려고 애는 쓰지만 어쩌겠는가, 생김새 그런데... 그럼에도 툭툭 털고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고 20년이 넘게 이 교회에서 묵묵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이야기이다.

그렇다. 아름다운 사람은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에 가까운 삶을 사는 자이라.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간음자였으며 베드로는 배신자였지만 그들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의 실수들을 통해 자신을 알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존재에 가까운 삶을 살다 갔기 때문이라.

삶을 조금 더 단순하고 소박하게 만들자. 약속을 덜하고 물건을 적게 사고 TV를 좀 적게 보고 조금만 덜 먹고 잠깐과 간섭을 조금 덜 하고 그 대신 몸을 조금만 더 움직여 산책을 하고 청소를 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며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 보면 어느새 존재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좀 더 존재에 가까운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려면 바람처럼 사는 삶... 그래서 웬만한 일은 다 넘어가고 넘어가서 아주 작은 일에도 행복해 하고 감사하는 힘을 기르자.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하며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changsamo1020@gmail.com

푸른초상

(4면에서 계속)

우리 몸은 크게 영 혼과 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직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시간이나, 찬양할 때나 설교시간에도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 하신다는 것을 알면 마음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게 지내다가 교회 오면 예배시간에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가 예배 도중에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끝나는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시간에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생각대로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in truth)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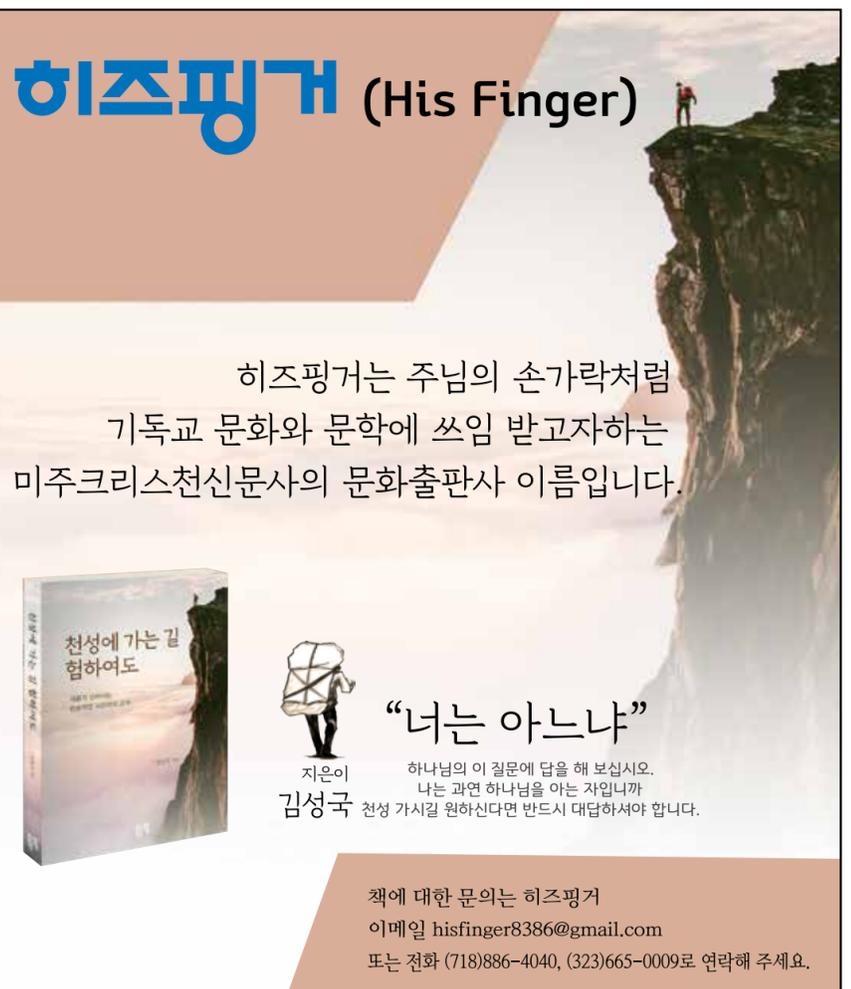
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성경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온 맘을 다해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은혜와 사랑, 능력을 체험하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림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드리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v.cjlee@gmail.com



히즈핑거 (His Finger)

(His 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지은이
김성국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담하셔야 합니다.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목회서신

“교회, 정말 어떤 곳인가?”



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교회를 정의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건물? 조직? 제도? 성경은 정확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감옥 안에서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였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1:23).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정말 신비롭지 않은가? 교회는 회중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물이 곧 교회 아니다. 교회는 운영을 위해서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직과 제도가 곧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과 조직과 제도로 이해를 할 때는 교회에 대한 공격을 두려움 없이 쉽게 시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물과 조직과 제도는 비인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 이해를 하면 교회에 대한 공격이 두려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대한 공격이 건물과 조직과 제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다. 현 시대의 교회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가 시시하게 여겨지는 시대적 풍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딜러에서 자동차를 처음 사

을 때는 먼저 하나 물어봐봐 정말 애지중지하게 다룬다. 그런 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의 애지중지했던 마음이 밋밋해진다. 교회의 건물과 조직과 제도는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의 본능적 감각이 밋밋해지게 된다. 밋밋해진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시시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과 조직과 제도를 의존했던 교회들은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흔적만 간신히 남겨 놓는 경우가 태반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청사진의 핵심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었다. 교회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청사진의 핵심은 그리스도였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1:23).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즉 교

회는 그리스도도 충만히 채워지는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성도들이다. 정리해보면, 교회는 성도들만에 그리스도도 충만히 채워져 가는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적어도 교회가 그리스도도 충만히 채워져 가는 것을 보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도 충만히 채워져 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놓친 채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서의 교회로 기능하기보다는 건물로서 그리고 조직과 제도로서 교회가 기능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시대는 팬찰을 수 있지만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에 부흥의 가도를 거침 없이 달렸던 유럽의 교회들이 형편없이 시들어져 있는 것은

웅장한 건물과 탁월한 조직과 제도는 갖추고 있었지만 교회를 그리스도도 충만케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이 진리가 진리 중의 진리이다. 성령께서 모두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도 충만히 채워지는 교회를 갈망하라. 현대교회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 웅장한 건물과 탁월한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교회가 그리스도도 충만히 채워져 가는 일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COVID-19이 시작된 이후로 교회들의 사역방식이 대면 사역에서 비대면 사역으로 순발력 있게 전환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대면 사역이든 비대면 사역이든 반드시 그리스도도 충만히 채워져 가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도 충만히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COVID-19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교회들이 꿈꾸어야 할 이상이다. newsong6364@gmail.com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라”

동부개혁장신 제31회 졸업식, 9명 졸업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제 31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22일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학장 김성국牧사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며 “가족과 교회, 성도, 교수님들의 정성을 기억하고 고 장영춘 학장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라. 그가 언젠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라”고 훈시했다.

예배는 학장 김성국 박사 사 회로 기도 이종원 목사(총무처장), 성경봉독 홍승룡 장로(이사), 찬양 글로리아싱어즈(영상), 말씀선보 조문휘 목사(KAPC 총회장), 학사보고 허윤준 박사(학감), 학위수여 시상 훈시 김성국 박사, 졸업생을 위한 기도 정기태 목사(총동문회장), 격려사 정관일 박사(캐나다분교장, 영상), 축사 백운영 박사(이용길 박사(이사, 영상), 답사 한신회 졸업생, 기념품 증정, 광고 이종원 목사, 축도 강기봉 목사(학생처장) 순서로 진행됐다.

조문휘 목사는 “하나님께 충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31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기념촬영했다.

성된 일꾼”(고전4: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설교제목은 방향감과 동기부여를 주는 제목”이라며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은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경이다.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이 나가야 한다. 둘째,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셋째,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 마지막 결과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시편 73:28 ‘하나님께 가까이감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졸업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동영상 중계로 이뤄진 이날 졸업식에서는 9명(캐나다분교 1명)이 졸업했다. 이날 졸업생은 △목회학석사: 김금희, 김영미, 나중선, 박혜경, 전행복, 최진권, 한신회 △신학사: 김경, 문인숙이며 △학장상: 한신회, 문인숙 △이사장상 최진권 △공로상 전행복 졸업생이 수상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1987년 개교 이래 목회학석사 251명 등 총 505명이 졸업했으며, 본교 외 캐나다분교와 부설 선교대학원이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회는 어떻게 가야하나?”

뉴욕교협 주최 ‘포스트 팬데믹’ 포럼

뉴욕교협이 준비한 포럼 “뉴욕! 포스트 팬데믹, 교회는 어떻게 가야하나?”가 6월 22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첫날은 오전 10시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둘째 날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셋째 날은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각 포럼은 3개 주제의 발제 후 질문과 패널 토의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양민석 회장이 평가 및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정용 목사(서기) 사회로 진행된 첫날 포럼을 마치고 양민석 목사는 “패널들이 핵심을 군더더기 없이 잡아주시고 우리들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셨다. 특별히 위기와 반성에 대해 진단해주셨다”며, “지금까지 3P(프로젝트, 퍼포먼스, 프로그램)로 움직였던 교회의 본질을 되새겨 봤다. 모바일 사역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비해 교회가 가야할 방향과 갱신과제를 스태크놀로지에 대한 과제 △온라인사역의 신학적 정립 △영적 다이내믹 △소그룹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 △최소한의 예배 △사랑 나눔 등에 대한 과제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첫 발제자 김정호 목사는 “목회 패러다임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에서 비필수 교회는 사고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동시에 본질적 새로 거듭남에 도전받게 되고 교회 생태계가 되살아날 것으로 본다며 1)성도 한 사람이 주체적 예배자로 살아날 것 2)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될 것 3)출어려서 연결되는 교회의 중요성 4)필수적 본질에 집중, 성도의 사역자화 5)교회가 필수적이라는 노력의 정당성 6)교회들의 연합 협력 상생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



뉴욕교협이 개최한 포럼 첫날 발제자들과 교협 임원진이 기념촬영 했다.

고 예측했다.

두 번째 발제자 허연행 목사는 “차세대교육 어떤 변화를 주어야하나?”에서 1)비대면의 장기화, 반복가능화와 2)온라인사역은 기본장비 갖춘 교회 투자증가를 전제로 하고 2가지 한계로 1)온라인사역 체계 차세대교육 DNA의 차이를 언급했다.

허 목사는 지난 3개월 온라인예배의 긍정적 변화로 1)비활동적 아이들의 재발견 2)온라인 전도 3)가정협력 등을 들었고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로 1)출석률 2)디지털문화에 익숙한 교사 3)아마추어 온라인사역자의 업무량 폭주 4)온라인예배에 익숙해진다 5)대면교제의 빈약 등을 들었고 장기적 대책으로 △사역자 및 교사 훈련 강화 △교회 장비구입 △가정예배 캠페인 △교회리더십의 최우선적 관심과 전폭적 지지 등을 들었다.

마지막 발제자 김성국 목사는 “지역전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 수 있는가?”에서 “팬데믹이 전도 측면에서는 최적의 기회가 된다”고 전제하고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세대는 질망의 세대지만 이를 넘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며 “교회는 대면

과 비대면 상황에서 균형을 잡고 전도를 해야 하는데, 성령 받은 교회가 전도할 수 있다. 비대면 상황 활용 전도방법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S-short, I-interesting, M-message, P-power, L-link, E-emotional)”을 설명하고 “대면 또한 포기할 수 없다”며 요이1장 12절을 인용했다. 또 정제민 이민교회에 다민족 선교/전도에 대한 비전도 강조했다.

포럼 둘째 날 23일 패널과 발표 주제는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2세, 정장년 목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홍하나 권사(퀸즈장로교회) “코로나19 백서 발행” “코로나 이후 신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안”, 이현구 목사(퀸즈한인교회 교육담당) “2세 교육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등이다. 사회는 김준현 목사(AYC사무총장)가 맡았다.

셋째 날 24일 패널과 발표 주제는 최호섭 목사(뉴욕영락교회)와 주영광 목사(뉴욕한인교회)가 “중소형 교회 팬데믹 이후, Micro Church Movement의 Open Door!”, 김종일 목사(뉴욕성서교회) “예배의 핵심과일과 변화의 방향!” 등이다. 사회는 김진우 목사(MET교회)가 맡았다.

이번 포럼 동영상은 CTS TV가 후원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했다.

(유원정 기자)

23,500달러 모금 신청13교회 각천불씩

뉴저지교협 코비드19 1차 지원 상황 발표

뉴저지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는 코비드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원 접수와 모금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상황은 다음과 같다.

△1차 모금 및 지원: 모금액 23,500달러 △모금 참여: 뉴저지 교협이사회, 필그림선교회, 러브뉴저지, 한인회장, 산돌교회,

뉴욕한인상조회 △지원교회: 신정교회 13교회 각 1,000씩 지원(회원교회 6교회, 비회원교회 2교회, 뉴욕소재 교회 5교회).

뉴저지교협은 비회원교회는 뉴저지교협 가입을 당부하며 2차 지원 및 모금도 한다고 밝혔다.

2차 지원 및 모금 마감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회원교회 △1차에서 지원 받지 않

은 교회 △기관 및 단체 제외 △교회 렌트비 지원에 국한하며 렌트계약서 첨부 △지원 방법: 온라인 (https://forms.gle/FpF2yzAbSqB2xiVq5)으로 신청

후원 참여를 원하면 회장 장동신 목사(201-787-1422)나 총무 육민호 목사(201-600-8590)에게 연락하면 된다.

수표로 보낼 우편주소는 Check payable to CKCNJ, P.O. BOX 205 Palisades park, NJ 07650.

(유원정 기자)

투병 중 안성국 목사에 1만불

웨체스터한인교협, 기금전달 및 기도회

웨체스터한인교회협의회는 6월 22일 심각한 신부전증으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능력교회 안성국 목사에 총 1만 달러의 모금액 중 일부를 1차로 전달했다.

안성국 목사는 신부전증이 재발해 건강이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상태다. 웨체스터와 브롱스 지역에서 목회를 비롯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위중한 건강 악화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당일 오전 뉴욕한인제일교회에서 열린 웨체스터교협 모임은 안성국 목사 회복을 위한 합심기도회로 진행됐다.

교협회장 허경열 목사는 “회원 교회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모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계속해 목사님의 건강회복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일어서기 불편한 안성국 목사에게 다가가 모금액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까지 모금액이 9,150달러였으나, 한 교회가 자원하고 나서



지난 22일 웨체스터한인교협 기금전달 및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 앉은 이가 안성국 목사.

1만 달러를 채워 넣어 사랑을 완성하는 아름다움을 보였다.

허경열 목사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하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자고 역설했다. 노성보 목사는 대표기도를 통해, 최기성

목사는 치유합심기도를 인도하며 동료 목회자의 회복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인도했다. 또 기금모금에 앞장선 박효성 목사는 마치 안수기도 같은 뜨거운 축도를 했다.

웨체스터한인교회협의회는 뉴욕북부에 위치한 15개의 한

인교회들이 소속돼 있으며, 연합성회 등 지역교회 연합의 모범을 보이는 지역이다. 소속된 교회는 뉴욕백민교회(임일송), 뉴욕세광교회(이민영), 뉴욕한인제일교회(송인규), 웨체스터반석교회(김지섭), 새은혜교회(김홍선), 웨체스터장로교회(노성보), 웨체스터한빛교회(신성근), 웨체스터제일교회(김영),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웨체스터연합교회(전구), 답스퍼리한인교회(최기성), 한인동산장로교회(이풍삼), 뉴욕능력교회(안성국), 뉴욕웨체스터선교회(허경열) 등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웨체스터 목사합창단 제1회 연주회 때만

해도 건강하게 찬양했던 안성국 목사가 건강문제로 크게 힘들다는 소식을 들은 웨체스터회원교회들은 부활주일 헌금 등을 모아 이번엔 안 목사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인 도움도 이어졌다.

뉴욕교협도 안성국 목사 돕기에 1차 지원을 했으며, 곧 2차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안 목사 돕기를 원하면 Pay to에 The Westchester Council로 적어 협의회(101 Lincoln Ave., E, 1F1, West Harrison, NY10604)로 보내면 된다.

▲연락처: (914)772-4036. (기사제공: 웨체스터교협)

교계 게시판

인랜드교회 장학생모집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 우수한 인재로서, 장래 하나님의 사업 또는 사회에 기여할 바가 기대되는 자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 교회 홈페이지(www.inlandpca.com/scholarship)에 있는 장학금 설명서를 참조하고,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영어로 작성해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InlandChurchScholarships@gmail.com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신학생 장학금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영어권 사역 준비 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제공한다. 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미국 내에서 신학공부 중인 Korean American 1.5세나 2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인 자로서 영어권 사역(Ministry or Teaching)을 준비하고 있는 자. 장학금 종류는 △목회자양성 장학금: 목회학석사(M. Div.)과정 및 박사(D.Min.)과정 입학 예정자나 재학생 △신학자양성 장학금: 신학공부를 위한 (M. Div 및 D.Min. 제외) 대학원 과정 입학 예정자나 재학생. 지원 서류는 △외력서 △에세이(2-3 페이지 분량)-목회자양성 장학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Korean American 교회의 미래 목회자로서 나는 어떤 고민과 사명 의식을 갖고 있는가?"-신학자양성 장학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Korean American 교회의 미래 신학자로서 나는 어떤 고민과 사명 의식을 갖고 있는가?" △추천서 2인(학업과 사역현장에서의 추천서 각 1인) △가장 최근 학교 성적 증명서 △입학확인서(2020년 가을 입학생만 해당 됨). 지원마감일은 7월 12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tfpcpcusa@hotmail.com

Teen Prasso Bible Study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Teenager 자녀들이 방학동안 하나님과 깊이 만나도록 돕는 "TEEN Prasso Bible Study" 과정을 화상앱 Zoom으로 연다.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미주동부시간) 8주간 영어로 진행되며 미주 전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다. 등록비는 80달러(교재비 20달러 별도). 교재는 미리 우편으로 발송한다. 등록비는 Zelle-wooltarius@gmail.com PayPal-paypal.me/wooltari Venmo-wooltarius로, 등록은 https://forms.gle/uUhE96URuRsrhvZ59 클릭해서 작성한다.

▲문의: (646)300-4790 wooltarius@gmail.com

"임상시험이란 무엇인가" 세미나

LA 온누리교회와 시디스-사이나이 건강형평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 "임상시험이란 무엇인가"가 오는 22일 오전 11시부터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강사는 시디스-사이나이 메디컬센터 양주동 전문의. 간암전문의 양주동 박사는 임상시험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임상시험의 종류, 임상 1-4상 용어설명, 각 단계별 차이점 등을 강의한다. 주최 측은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관련 뉴스를 보다 흥미롭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YUDOGO.COM)에서 등록을 하면 이메일로 접속번호를 받을 수 있다.

▲문의: (310)423-7410 김동희 코디네이터

K&P갤러리 블루밍 전시회 8명 참여

블루밍 전시회가 뉴욕 웰시에 위치한 K&P갤러리에서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유니스 최를 비롯 아넷 허, 하상우, 김순겸, 황인해, 장재림, 김형수, 김학일 등 8명의 작가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유니스 최 씨는 "디자이너로서 작품을 만들 때 항상 내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나온 경험과 관찰에서 시작된다"며 "청중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무언가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작품에서 타이포그래피는 나의 언어이자, 목소리가 돼

내 작품을 이야기하는 표현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나의 창작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타이포그래피는 인쇄물, 디지털, 심지어 비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쓰여진다"고 설명했다.

사카고 Next.cc에서 그래픽 디자이너와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디지털 디자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유니스 최 씨는 뉴욕에서 열린 어머니 웹디자인 시상식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 인디고 디자인 시상식에서 입상했다.

(기사제공: K&P갤러리)

KAPC세계선교회 팬데믹 속 선교사 파송

김대원/김현주 전문인선교사(라오스) 파송예배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세계선교회(이사장 유재일 목사)는 6월 14일 오전 11시 앵커리지열린문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예배를 갖고 김대원/김현주 선교사를 라오스로 파송했다.

김윤곤 선교사(케냐) 사회로 시작된 파송예배는 김정대 장로가 기도했으며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영상을 통해 설교했다.

조 목사는 '가서 제자 삼으라'(마28:18-20)는 제목으로 "팬데믹으로 세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97%가 불교국가인 라오스에서 영광스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팬데믹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기 원하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목사는 "제자가 되는 단계는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고, 배우고 훈련돼 다시 다른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기까지다.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라오



선교사파송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스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선교회 이사장 유재일 목사는 선교사 서약과 함께 파송패를 수여했다.

이날 파송예배는 박광석 선교사(WMS Director)가 격려사를, 한세영 목사(서기,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와 유병국 선교사(WEC International)가 축사했으며 유재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대원 선교사는 현지에서 무료영어학원, 공립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 주일학교 및 제자양육, 구제활동과 교회개혁의 비전을 품고 15일 델타항공편으로 출국했다.

현재 KAPC 세계선교회는

106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2020 남가주 VBS 온라인으로 열린다

6월 24일-8월 12일, 주제도 다양

2020 남가주 여름성경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6월 24일 벨리연합감리교회와 윌셔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8월 12일 토랜스조은교회까지, 올해 주제는 'Concrete & Cranes', 'Knights of North Castle', 'Light Up the Dark, Rebuilding Ruins', 'Mystery Island', 'Rocky Railway', 'Time Lab' 'Discovering Jesus from Eternity Past to Eternity Future' 등이다.

다음은 남가주 교회 VBS일정이다.

- △6/24-26 벨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6/24-28 윌셔연합감리교회 △6/29-7/3 복음장로교회(이광형 목사) △7/7-11 샌디에고한빛교회(이병희 목사) △7/7-24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 △7/9-11 코너스톤교회(이중
- 용 목사) △7/10-12, 18-19 OC영락교회(김경섭 목사), △7/13-17 세리토스장로교회(박규성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7/15-18 홀리톤장로교회(황인철 목사) △7/5, 12, 19, 26 베릴한인교회(김한우 목사) △7/15-19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 △7/16-18 충현선교회(민종기 목사) △7/16-19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 △7/17-18 대홍장로교회(권영국 목사) △7/19-23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7/21-25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7/23-25 엘바인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 △7/29-8/2 사랑의빛선교회(윤대혁 목사) △7/30-8/1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 △8/12-16 토랜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

(박준호 기자)



다우니제일교회 창립38주년 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 수 더하는 교회"

다우니제일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예배

다우니제일교회(담임 안성복 목사) 설립 38주년 기념예배가 21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안성복 목사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주셔서 감사하다"며 "38년을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만 있음을 고백한다. 온전히 다우니제일교회의 주님의 교회되어 복음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희성 목사 찬양인도와 안성복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교회 역사 영상과 최상명 터키 선교사 축사영상이 소개됐으며 황천영 원로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부사역자 부부의 영상 특 별찬양이 있었으며 안성복 목사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행 2:46-4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안 목사는 "좋은 교회는 내일이 좋은 교회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라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그리

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이 분명할 때 교회는 성장한다. 예수그리스도 통한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몸 된 교회는 성장한다. 둘째, 성도의 교제 성만찬, 사랑의 섬김 헌신으로 교회부흥이 될 수 있다. 셋째, 부흥의 역사가운데 기도는 필수적이다. 하나님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삶이 회복 될 것이다. 넷째,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이 가정으로 이어졌다. 강단에서 복음 선포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섬기고 하나 되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드러낼 때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예배는 황천영 원로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행복찬교회 금요찬양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알 때 이긴다"

남가주행복찬교회 금요찬양기도회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김경일 목사) 금요찬양기도회가 19일 저녁 8시30분에 열렸다.

김경일 목사 사회와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한 기도회는 합심 기도 후 김모세 목사가 골로새서 2:2-3, 요한복음 20:32를 본문으로 설교했다. 김모세 목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능력이 많아도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기쁨 부음 받았다는 의미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많지 않아 어려움에 처할 때 넘어지게 된다"라며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는 첫째, 인간이 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다. 둘째, 죄 때문에 죄의 지배아래 들어갔다. 셋째,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 모든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때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김경일 목사 인도로 합심기도를 했다.

이날 기도회는 김경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교계 현장예배 재개 후 반응

남가주는 개빈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현장예배가 재개된 지 4주가 지났다. 이중 코너스톤교회(이중용 목사), LA기쁨의교회(이희문 목사), OC함께하는교회(이근환 목사), 가스비전교회(임금빈 목사), 다우니제일교회(안성복 목사), 남가주웰로십교회(박혜성 목사)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우선 현장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이중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현장예배를 시작하기 전 교회 리더들과 함께 교회에서 태평양법률협회 주성철 목사를 초청해 먼저 주의사항들, 연방법, 주법, 시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 거기에 근거하여 철저히 준비를 했다"며 "예배당의 모든 시설물들을 소독했다. 그리고 의자

는 6피트 간격으로 배치했다. 정부 권고안에 따라 본당에 100개의 의자를 배치했으며 강대상 앞과 모든 찬양팀 앞에 플라스틱 유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희문 목사(LA기쁨의교회)는 "현장예배가 다시 재개가 된다는

는데 계속 신경을 썼다"며, "정부 시책이 교인들의 예배당 입장이 제약이 있어 1층 식당에서 필요하면 주차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남가주웰로십교회의 경우 대면예배를 위해 토요일 오후에 남

법적 사항, 소독, 거리두기 등 철저히 준비 예배는 공통적으로 사전 마련 메뉴얼 따라 온라인예배 병행...영적 갈급함 채우기 관건

소식을 접하고 방역을 신경 써 실시했다. 토요일에 교회 소독, 손잡이, 문고리 등 철저히 기했으며 지속적으로 교회 환기를 시키

선교회원들이 모여서 알코올로 교회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근환 목사(OC함께하는교회)는 "현장예배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다. 만에 하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에 교인들이 각각의 차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차장예배를 실시했다"며 "특별히 건물안 시설물 점검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사전에 마련된 메뉴얼에 따라



남가주교회 현장예배 재개되었다. (사진 위 왼쪽부터 박혜성 목사, 이중용 목사, 이근환 목사, 사진 아래 왼쪽부터 임금빈 목사, 이희문 목사, 안성복 목사) LA기쁨의교회는 현장예배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참석을 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10분 전에 컴퓨터 앞에 앉으라, 단정히 옷을 입고, 책상에 앉으라, 소파에 앉아서 편안히 예배드리지 말라 등을 강조한다.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예배 시청 탭에 예배 출석시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면예배 실시 후 교인들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매우 감사해 한다는 것이었다.

(13편으로 계속)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8)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교회담임)



있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된다.

3) 첫 추수감사절(秋收感謝節, Thanksgiving Day, 1621년)

메이플라워에 승선한 청교도 에드워드 윈슬로(Edward Winslow, 1595.10.18 - 1655.5.8)가 남긴 기록인 '모트의 이야기'(Mourt's Relation)에 의하면, 1621년 가을 53명의 필그림과 도움을 주었던 인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삶을 실천하고자 온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 주일 성수, 십일조, 경건생활을 온전히 실천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1623년 7월 30일, 감사절을 3일간 지킬 것을 공포했다(Governor, William Bradford made an official proclamation of the day of Thanks giving).

“여러분 모든 청교도들(Pilgrims)이여!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Father)께서 금년 우리에게 인디언 옥수수과 밀, 완두콩과 호박, 그리고 채소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산림을 울창하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조개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야만인들의 습격에도 우리를 보호하셨고, 온갖 유행병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지금 여러분의 총독인 나는 모든 청교도들이 그대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요일을 추수감사절 국가공휴일로 선언하다가 추수감사절이 연방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때는 1941년이다. 즉,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추수감사절 연휴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매년 담화문을 통해 1621년 플리머스에서 있었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갖는 중요성과 이날의 역사적인 전통에 경의를 표한다. 이처럼 청교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이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미국은 위기 때마다 의회가 '전국민 겸비와 금식의 날'을 정하고 대통령은 이를 정부 공식일정에 포함,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던 나라이다.

또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사람들은 메사추세츠에 도착하기 전에 배 안에서 소위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을 체결하여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의 시민 정치체계를 만들고 필요한 법률과 공직을 제정한다.

1620년 11월 11일 메이플라워 서약에 41명이 서명(署名)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대영 제국, 프랑스 및 북아일랜드의 신, 국왕, 신앙의 수호자 등등의 은총을 통해 송배하는 군주인 국왕 제임스 1세(잉글랜드 왕) 제임스의 충실한 신민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에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고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 위의 목적의 축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위 서약에 따라 개척지는 성인 남자가 참여하는 “민회(民會)”에 의해 통치된다.

메이플라워 서약은 훗날 미국 헌법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자유를 찾아 미지의 신대륙으로 온 102명의 메이플라워호 사람들을 후세 사람들은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라고 부른다. 이 필그림 파더스가 바로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선조들이다.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회관에 모여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며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공포(선포)하느니라.”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11월 29일)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한다. 그리고 약 200년 동안 추수감사절은 지역과 주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 제 16대 미합중국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1863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국가공휴일로 선포했다.

그 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

에 걸쳐 현재까지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파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즉, 세계 평화를 위한 강력한 지배력과 통치를 할 수 있는 초강대국, 신명기 28장 1-14절의 미국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최초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을 인도한 사람이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였다. 그는 “우리는 이곳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항구와 평화로운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나 바로 그 해 겨울은 매우 혹독하게 춥고 고통스러웠다.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으로 그들의 절반이 땅에 묻히게 되었고,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의

다.” 1621년 4월 영양실조와 피곤으로 초대 총독 존 카브(John Carve)가 사망한다. 그의 후계자로 31살 브래드포드가 총독직을 계승하고 약 30년 이상을 재임한다.

4월 15일에 선장 존슨(Jones)과 선원들이 다시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 갈 때에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플리머스 상륙 첫 겨울에 절반 사망...인디언 도움으로 옥수수 재배 첫 추수후 인디언 초청 3일간 하나님께 감사...교회, 학교 먼저 지어

공격 빌미를 막기 위해 무덤을 감추어야만 했다.

“1621년 1월과 2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102명 가운데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는데, 사망자 대부분이 비타린 C 결핍으로 발생하는 괴혈병을 얻어 이 세상을 떠났다. 건강한 젊은 청년 5-6명이 매일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일을 했으며, 이민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디언들이 공격해올 것을 두려워하여 무덤을 위장하기도 하였다. 신앙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한 청교도의 꿈은 깨어지는 것 같았고 이민의 결과는 비참해 보였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미지의 땅에 남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절망의 시기에 영어를 아는 스관도(Squanto, 1614년에 백인들에게 납치되어 노예로 영국으로 잡혀다가 그의 고향 플리머스로 돌아옴)와 인디언들이 찾아와 사냥과 낚시하는 법, 조개와 견과류, 딸기와 같은 장과류를 얻을 수 있는 장소와 옥수수를 심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 굶주려 죽게 된 절망적 상황에 처한 청교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드디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브래드포드의 지도 아래 청교도들은 옥수수와 영국에서 가져왔던 완두콩, 보리 씨앗들을 심게 되

던 90명을 초청하여 눈물겨운 첫 추수감사절을 3일 동안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렸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받아 묵상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암파노아그(Wampanoag) 추장 마싸소이트(King Massasoit) 등을 초대했으며 이들은 사슴 다섯 마리를 잡아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다. 또한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회관에 모여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며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공포(선포)하느니라.”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11월 29일)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한다. 그리고 약 200년 동안 추수감사절은 지역과 주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 제 16대 미합중국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1863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국가공휴일로 선포했다.

그 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ongguk, Bxk, Bethel, Boston, Sallat, etc.

“다음세대 양육, 가정으로 중심이동”

예장합동, 코로나 이후 ‘월데이 콘퍼런스’ 대안 모색

다음세대 성도 수 감소에 신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며 한국교회는 다음세대 복음화와 신앙교육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본부장 권순웅 목사)가 22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월데이 콘퍼런스’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다음세대 세움의 소명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까’ 하는 문제의 대안 마련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과 다음세대’를 주제로 강의한 권순웅 목사는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이 일상에 가져올 변화에 엄청난 가속도를 더했다”며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인한 자발적 통제’ ‘비대면 가상공간 문화 확산’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목사는 주일학교 성경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양육프로그램이 생략되면서 다음세대

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동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하며 가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와 학교가 그동안 가정을 대체 장소로만 여기고 본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며 “각 가정이 바른 영적 울타리가 돼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정 내 성경 탐구, 찬양 부르기 등 영적 소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교회가 이끌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준 예장합동 총회장은 이날 목회자인 서울 꽃동산교회의 사례 발표자로 나섰다. 김 목사는 감염 우려로 대규모 집회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그룹화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랑방’이란 이름으로 3-4개 교구가 연합해 다음세대 복음화를 꾀하는 전도 소그룹 운영을 소개했다.

그는 “동네마다 아이들, 학부모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섬세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하나의 대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지역 교구가 움직이는 게 효과적”이라며 “소그룹 영어회화, 홀라후프, 블록 쌓기 등을 다양하게 접목해 ‘사랑방’을 주일학교 전도의 교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당진동일 교회의 패밀리 처치(family church) 사역’ 대구대흥교회의 제자비전아카데미 ‘교회 밖 청소년을 치유하는 소울브릿지 교회’ 등 다음세대 부흥의 열매를 거둔 목회 사례가 발표됐다.

콘퍼런스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등록된 400여 명만 입장할 수 있었다. 예배당 앞에는 발제자들이 마련한 부스가 운영돼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참석자들이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에서 현장을 찾은 A목사는 “저마다 특색 있는 다음세대 부흥 전략을 접할 기회였다”면서 “그동안 접목해 온 전략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언택트 버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이후 목회 ‘현장예배와 교제회복’

예장통합, 담임목사 1135명 설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목회자들은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설교력을 높이며 모이는 예배를 강화하는 쪽에 목회 중점을 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예배 및 온라인 성경공부를 강화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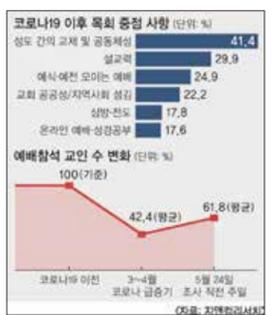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교단 소속 담임목사 1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19 설문조사 보고서 전문을 16일 공개했다.

주일 장년 현장예배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을 100%라고 했을 때 3-4월 평균 42.4%의 성도만 현장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직전 주일인 5월 24일에 평균 참석률이 61.8%라고 답했다. 교회별 평균 38.2%의 성도들이 아직 오프라인 예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출석교인 회복 예상 기간을 묻자 목회자들은 1년(33.3%) 6개월(28.4%) 회복 어려울 것(18.0%) 순으로 답했다. 주일예배에 대해선 73.2%

가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답변은 25.1%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항목에도 39.0%가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소속감이 약해졌다’를 꼽았다. 재정문제(20.8%)나 다음세대 교육(15.3%)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어려움(10.1%) 등은 뒷순위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 면을 꼽아달라는 주문에는 44.2%가 ‘현장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됐다’로 꼽았다. 현장예배에 대한 목회자들의 강조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코로나19 이후 목회 중점 사항엔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가 1.2순위 복수 선택으로 41.4%를 차지했다. 이어 ‘설교력 강화’ 29.9%, ‘모이는 예배 강화’ 24.9% 순이었다. ‘교회 공공성/지역사회 섬김(22.2%)’과 ‘온라인 예배·성경공부 강화(17.6%)’ 응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현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질문엔 ‘20~40%’가 53.0%, ‘20% 미만’이 23.8%, ‘40~60%’가 17.3%라고 답했



다. 대도시의 출석교인 99명 이하이면서 목회자가 49세 이하인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감소 비율이 높았다. 재정이 좋든 안 좋든 어느 분야 지출을 줄일 것인지 질문엔 ‘교회 행사비/운영비’ 60.2%, ‘목사/직인 급여’ 20.9%, ‘상회비/노회 관련 재정 지원’ 8.7% 순이었다. ‘국내 선교비(2.2%)’나 ‘교육부서 재정(0.3%)’ 등은 줄이지 않겠다는 의사가 비교적 강했다.

결과를 분석한 지용근 목회 데이터연구소 대표는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활동 요구는 높는데 목회자들은 온라인보다 현장예배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온라인을 하거나 교인없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예배로 갈 것 같고, 온라인을 안 하거나 온라인을 하는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은 딜레마가 하반기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

한교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성명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사진)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17일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교연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상징적 장소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

소를 마음대로 폭파한 행위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과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약속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단지 몇 장과 쌀 한 줌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 골몰하는 이들을 상대로 언제까지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장밋 꿈을 꾸아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핑계로 강경 전략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 전략도 없이 무조건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구분단 정책을 내려놓고, 분단된 민족, 분열된 가족의 교류를 보장해 주라고 요청했다.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의 길 정착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교회가 시민사회와 연대해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데 헌신하겠다는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인 주님의 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할 뜻 그리고 다음세대를 통일세대로 키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고 목사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여름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들이 지리 포기하기보다 어떻게든 하겠다는 마음이 집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전문 사역기관이나 교단들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각 교회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떤 상황에도 평화로 가는 대로 뉘아 나가자”

한교총, ‘6·25 70주년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이 17일 “남북 화해와 공존의 길은 여전히 멀고, 비록 좁고 험해도 우리는 서로 배려하며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어떤 상황에도 평화로 가는 대로를 뉘아 나가자”는 내용의 ‘6·25 70주년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와 여야 정당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교회도 협력하겠다는 뜻이 담

겼다.

한교총은 먼저 정부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과 주변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정착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 정당에는 그동안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것을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민족의 공존과 국익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는 각국의 이익에 편승한 한반도의

한국 선교 개척자 조동진 목사 별세

한국 세계 선교의 개척자인 조동진 목사가 19일 오전 9시 40분 경 향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1924년 평북 용천 출신인 조동진 목사는 46년 2월 고향을 떠나 서울로 내려와 장로회신학교를 나왔고 미국 예스베리신학교대학원(석사), 미국 윌리엄캐리대학교 대학원(박사)을 졸업했다. 서울 후암교회 담임목사로 목회사역을 하던 중 선친의 유업인 통일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61년 한국교회 최초로 선교학을 신학교 선택과목 교과과정으로 설치했고 63년 한국교회로는 처음으로 선교대학원인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O)을 세웠다. 같은 해 초교과 세계선교단체인 국제선교협력기구(KIM)도 설립했다. 또 아시아선



교협의회(AMA)와 제3세계선교협의회(EWCO)를 설립해 회장으로 섬겼다. 89년 1월에 고향을 떠난 지 43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고 이후 수차례 북한과 왕래하며 분단 시대를 종식하고 민족통일의 종이 울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 김일성종합대학원 종교학과 초빙교수, 평양신학원 초빙교수로 지내고 ‘조동진선교연구원’을 설립했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페이스북에 ‘고(故)조동진 목사님 온라인 추모방’을 만들어 애도하고 있다.

10곳 중 7곳 여름성경학교 등 축소

주일학교사역자연구회 여름 사역 온라인 설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성경학교 수련회 등 교회학교의 여름사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설문 결과가 나왔다. 규모를 축소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교회들도 있고 여름사역을 아예 준비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었다.

주일학교사역자연구회(대표 고상범 목사)는 지난 1일부터 약 2주간 전국 62개 교회의 담당 교사와 교역자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여름사역에 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여름사역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지에 물음에 21.7%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보인다. 여름사역을 준비한다는 답변은 71.7%였다.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교회의 10곳 중 7곳이 사역을 작년보다 축소하거나 다른 계획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답했다. 축소한다는 답변이 45.8%로 가장 높았고 작년과 같이 진행한다는 답변은 27.1%였다.

고상범 목사는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교회가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며 “주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회들은 숙박 형태의 기존 수련회 방식은 지양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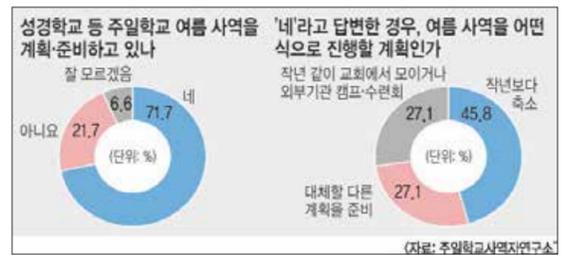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도권 한 대형교회 고등부 담당 부목사는 “중고등부는 소규모로 모이더라도 유아·유치부 등 아이를 부르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현장성을 살리면서 가정 내에서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회도 있었다. 주일학교 성도가 20여명인 A교회 목사는 “화상회의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척교회의 경우 고민이 더 깊다. 서울의 한 개척교회 목사는 “최근 수도권 일부 개척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개척교회에 관심이 쏠려 원래 세우던 계획도 멈추고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최

대안 조심스럽게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고 목사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여름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들이 지리 포기하기보다 어떻게든 하겠다는 마음이 집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전문 사역기관이나 교단들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각 교회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위한 노력과 기도 계속”

세기총,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관련 입장발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6월 16일 개성에 세워진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뉴스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세기총은 “이렇게 남북이 함께 자리를 정하고 교류했던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4년3개월 6대주광고 선교캠페인 종료

복음의 전함 ‘포스트코로나시대,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기대’

복음의 전함은 4년 3개월간의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을 마쳤다 고 17일 밝혔다. 6대주 광고선교캠페인은 2016년 12월 북아메리카, 2017년 5월 아시아, 2017년 9월 오세아니아, 2018년 3월 유럽, 2019년 10월 남아메리카, 2020년 2월 아프리카에서 펼쳐졌다.

복음의전함 이사장 고정민 장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무모한 일이었지만 오직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되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고 이사장은 “늘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심이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감 감독회장 선거 전자투표로 하자”

대책위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 비대면 투표 제안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목회자와 평신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감독회장·감독 선거 대책위원회’(대책위·공동대표 안승철 백삼현 유재성)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신학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로 예정된 감독회장·감독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 1만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이 모여야 하는 선거는 문제가 크다”면서 “특히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코로나19

에 취약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전자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교회를 비롯한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는 것도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예년 선거운동이 후보자나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거관자를 직접 만나 식사하는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진행돼 왔다”면서 “선거운동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면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

그 영광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6대주광고선교캠페인 총결산은 2016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펼쳐진 대기록을 영상(https://youtu.be/9eXrG3sUfHo)으로 볼 수 있다. 고정민 이사장은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코로나 이후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복음을 전함에 결코 멈춤없이 기도하며 순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면서 “유권자들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경양 대책위 집행위원은 “국무총리실도 코로나19로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경우 온라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면서 “기감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긍정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자투표 제안서를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8월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후보자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없게 되었기에 더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태를 주시하며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기총은 “타 기관과는 달리 시작부터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중점적인 사업으로 하여 2014년 백두산 정상에서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으로 제주도 한라산과 서울 경기 등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순회하며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10개국 이상의 나라를 순회하면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오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위협적인 도발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기도는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19)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10. 두려움

자신을 혼돈케 하는 음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더니 자기는 감옥에 갈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내가 감옥에 가게 될까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경찰이 당신을 쫓을 만한 죄를 지었나요?”하고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렇다면 당

신이 듣는 그 음성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마귀가 당신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씨앗을 심으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듣는 음성이나 생각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본질상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설명해주었다. 우리는 이를 대적해야 한다. 그녀가 맑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원수

가 혼동되고 변질된 언어로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감정적, 영적 아픔으로부터 깨끗한 마음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근심과 걱정의 영이 공격할 틈이 없다고 말했다. 잘못된 음성을 알아차리고 저항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만약 당신이 심각하게 우울함을 겪고 있다면, 파괴적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

체하는가에 달려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어떠한 잘못된 생각에도 대항하라 하신 이유이다. 파괴적인 음성들을 제대로 구별하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평안을 찾을 수 있다.

11. 음성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안정을 찾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러던 그녀가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

다. 그러더니 무언가에 집중을 못하고 정신이 흐려지는 증세를 호소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성경읽기를 그만두어야 했다. 또한

다. 그러므로 당신은 타락한 말씀의 의미가 변형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일은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일이다. “내가 천사가 타락한 것에 관해 서술한 내용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내가 혹시 그들 중에 하나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그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하세요?” 난 그 즉시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알았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면서 그녀를 혼동하게 한 것이니죠. 그러므로 당신은 타락한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뒤로 그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뒤떨린 해석과 음성에 대적해 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마음을 제어하는데 개선을 나타냈고 기도를 더 많이 했다.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시어 간증을 쓰라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그녀는 기쁨을 다시 찾았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우울증을 치유해주시는 것이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를 위해 춤을 추라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녀는 주님 앞에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치유를 부른다. yonghui.mcdonald@gmail.com

하나님 말씀 마음에 심어야 근심걱정 물리쳐 마귀가 하나님 말씀 비틀면서 혼동케 하기도

다. 그러더니 무언가에 집중을 못하고 정신이 흐려지는 증세를 호소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성경읽기를 그만두어야 했다. 또한

다. 그러더니 무언가에 집중을 못하고 정신이 흐려지는 증세를 호소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성경읽기를 그만두어야 했다. 또한

다. 그러므로 당신은 타락한 말씀의 의미가 변형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일은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일이다. “내가 천사가 타락한 것에 관해 서술한 내용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내가 혹시 그들 중에 하나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그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하세요?” 난 그 즉시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알았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면서 그녀를 혼동하게 한 것이니죠. 그러므로 당신은 타락한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뒤로 그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뒤떨린 해석과 음성에 대적해 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마음을 제어하는데 개선을 나타냈고 기도를 더 많이 했다.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시어 간증을 쓰라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그녀는 기쁨을 다시 찾았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우울증을 치유해주시는 것이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를 위해 춤을 추라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녀는 주님 앞에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치유를 부른다. yonghui.mcdonald@gmail.com

기/고/칼/럼

호국의 달, 6월을 지나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답답한 감힘 속의 2020년도가 절반이 지나고 있는 6월의 중순을 맞았다. 지난달 하순 '미네아폴리스'의 백인경찰의 과잉집압으로 인한 흑인의 죽음이 시위에서 폭력으로 전국을 휩쓸어 큰 위함을 초래하기도 한 달이다. 서부보다는 동부,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에 그 위험은 가중되어서 이미 많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보였고 우리 한인교포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진정한 인권과 죽음을 조의하며 평화적인 시위가 있기도 했지만, 반정부시위꾼들과 반 기독교세력, 안티파(Anti-fa, 반파시즘, 테러단체) 등이 합세하여 폭도로 변해 곳곳에 불을 지르며 상점 등을 부수고 물품을 약탈하는 폭동으로 그 위세는 대단했다. 이 사건의 저변에는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반감과 유색인종들에 대한 편견이 갈등의 주원인을 우

리는 잘 안다. 1964년 마틴루터 킹 목사의 흑인인권에 대한 비폭력시위와 유명한 설교, 'I have a dream!' 은 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켰고 그의 피살 이후로 그동안 쌓였던 흑백갈등은 많이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발생하는 인종간의 갈등은 미국의 큰 난제 중의 하나이다. 며칠 전에 애틀랜타에서 다시 흑인청년이 총격에 사망하여 시위와 폭력이 재 점화될까? 모두가 염려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다가오는 11월의 미국대선을 공략하여 악한 씨를 뿌리는 안티 기독교의 세력들은 인권, 평등을 내세우며 젊은 층과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유익을 줌으로써 동성애, 낙태 등을 찬동하게 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곳 저곳에 텐트를 치고 거거하며 특히 교회주변에 누워 있는 노숙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눈에 들어옴은 1등 국가라고 자부하던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 편이함이 나만의 편견일까? 한국의 6월은 아름다운 산야에 수많은 파괴를 주었고 잿더미에서 울부짖고 몸서리쳤던 동족상잔의 6.25동란으로 우리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진 달이다. 이제는 그 고통을 품소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타계하시고 역사속의 한 시기로서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정치가들부터 국민들의 대부분 중심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전교조라는 일단의 교사무리들의 왜곡된 사상과 바르지 못한 역사를 배운 우리의 후세대들이 지금 한국의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2000년 대 중반에 OC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때 6.25가 북침이라고 담대히 얘기한 한국에서 조기유학 온 초등학생의 말에 놀란 나의 마음

은 그 후에 한국에서 선교하며 잠시 교사로 지낼 때 확인된, 놀랍지만 역사적 사실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나는 다시 소스라침을 금할 길이 없었다. 보편적 가치관이 잘못된 구습과 낡은 인습으로 판단되는 이 시기에 한국은 신, 구세대의 대립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무엇이 양심인지, 어느 것이 정의인지? 모르는 분별력 상실시대에 놓인 한민족이 안일함과 태평성대의 가치관으로 인해 미국인으로서 그 땅에 '코리아 드림'을 꿈꾸던 외국인들을 선교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회복지'라는 미명 속에 퍼주는 돈에 취하여 좋아하고 즐기고 있지만 그 돈들이 이제 곧 국가의 엄청난 빚으로써 어느 사태를 맞닥뜨릴 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재벌들을 억압하는 일은 결코 납득 되지 않는 자해현상이

며 혈맹인 미국보다 중국공산당을 선호하는 정치행보도 석연치않은 않다. 최근의 북한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그 앞에서 굽실거리는 남한의 정치가들의 행동은 나의 심기가 편치 않을 뿐 아니라 염려스럽기까지 한다.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작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적공포를 이미 맞고 있기에 다가올 미래와 후세대의 장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지키고 세워가야 할 또 다른 나라가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우리 신자들이 기도로 바르게 이룩해야 할 중요한 나라이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타락하면 내실보다는 건물과 겉모습 치장에 열중하게 되고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능력이 없으니 자주 세속화되어져서 급기야 세상의 조롱거리와 걱정 대상이 한국에서는 이미 실현되기도 하였다. 일각의 유혹과 당면한 현실의 염려라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나 성도 모두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힘써 기도할 때이다.

COVID19이 우연히 발생했을까? 예배도 못 드리도록 우리의 발목을 묶었던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여행도 못하고 단기선교도 힘들게 되었으니 오히려 우리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며 주와 가까이 하도록 이끄시는 주의 의도는 아닌지? 지금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시기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 집에만 갇혀 있게 하거나 무엇을 할지 몰라서 안일함과 무위도식에 빠지게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대한다. 위기는 최상의 기회도 될 수 있을!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안일함과 움츠림에서 깨어나면 다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떼와 같이 일어날 때가 속히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할 나의 걸로 호국의 달, 6월이 지나가고 있다. deborah0614@hanmail.net

김수남 목사
(KPCA 외국인선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관절 · 골격계 질환

원인 밝히는 것, 치료에 매우 중요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관절 내 염증은 뼈나 연골 등 관절 내의 중요한 기관에 영향을 끼치며 통증을 일으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거나 붓는 증상을 유발한다. 염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같이 면역기능의 이상 때문에 자가 면역질환으로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다. 또 혈액 내에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요산이 관절에 침착하면서 통풍성 관절염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루푸스 등도 관절염 증상을 보인다. 이처럼 각각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지만 관절염의 증상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의 염증이 심하지 않고 움직이거나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이 발생하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같이 관절의 심한 염증으로 인한 경우는 휴식을 취하면 관절이 굳고 뻣뻣해지지만 움직이면 좀 더 부러워지는 증상을 느낀다. 통풍성관절염은 갑작스러운 심

한 관절염 때문에 관절이 심하게 붓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발가락이나 발목 등의 관절이 가장 흔히 영향을 받는다. 관절염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치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와 면담이나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류머티스성 관절염이나 루푸스와 같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관절염은 혈액검사 등을 추가로 해서 진단을 내린다. 퇴행성관절염은 초기에는 수영이나 평지 걷기 등으로 다리의 근력을 기르고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하지만 증상이 진행되면 관절주사를 맞을 수도 있다. 심한 퇴행성관절염의 궁극적인 치료는 인공관절 교체 수술이다. 류머티스성 관절염은 관절이 변형되기 전에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통풍성관절염도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혈중 요산수치가 높은 경우는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문의:213-383-9388

남가주 교계 현장예배 재개 후 반응

(10면에서 계속)

이희문 목사는 “오랜만의 만남이 감사로 이어졌다”며 “소그룹 모임을 줌과 카톡으로 하고 있다. 그래도 교회에서 만나니 감격해 한다”고 밝혔으며 박해성 목사(남가주웨슬리교회는 “온라인보다 대면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했다. 스다시 시작된 대면예배에 대한 교회들의 고민은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의 예배였다. 이근환 목사는 “다시 교회에서 모였지만 목사와 만남을 갖는 것에 대한 기쁨 외엔 온라인으로 드렸던 것과 차이가 없었다”며 “예배가 마

친 후 식탁의 교제도 가질 수 없고 성경공부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분이라 말했으며 LA기쁨의교회는 교인들 30-40% 남가주웨슬리교회는 30-50%가 현장예배에 참석한다. 이희문 목사는 예배시간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교인들이 현장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해성 목사는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현장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 중에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언급했으며 이종용 목사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생긴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후유증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것이 염려돼 교회출석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신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건데 교회가 어떻게 후유증을 치유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임금민 목사는 “모든 상황이 정상화된 후 현장예배 참석자들과 온라인예배를 참석했던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질감 없이 온전히 한 몸 한지체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민”이라 말했다. 이근환 목사는 “대면예배가 허용됐지만 아직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참석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무리하게 교회를 열었다는 비난을 들어야 한다. 이미 LA에 있는 모 교회에서 확진

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비취지는 이미지가 나빠질 거 같아 염려가 된다”며 “폐이팔 등을 통한 현금안내가 자칫 잘못하면 현금강요로 비취질 수 있다. 코로나시대로 인해 살기 힘들어진 상황인데 교회가 돈만 밝히는 곳으로 오해를 줄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우니제일교회는 전교인 성경스기운동을 전개했다. 안성복 목사는 “1년 정도 전부터 성경스기를 실시했다. 매달 정해진 성경을 교인들이 필수하는 것이었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성도들이 성경스기를 통해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온전히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했다. 벌써 성경완필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성복 목사와 이근환 목사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재택근무로 가정에서 머물고 있기에 심방을 실시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기도를 해주었다. 임금민 목사는 교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인식을 정립시켜 나갔다. 임 목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기간을 통해 깨닫게 된 건 온라인예배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면예배만 드렸던 시절 교인들 중 예배참석을 못하게 된 분들은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하지만 의도적 불참이 아니라면 비록 본교회의 정해진 시간에 예배참석은 못하더라도 참석 가능한 시간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큼 성도들이 예배참석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7월 첫 주에 현장예배를 드리게 되는 남가주든든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는 교회전체적인 소독과 체온기, 세정제와 6피트 간격두기 등 안전을 위해 꼼꼼히 챙기며 준비하고 있다. 김현인 목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성경스기와 밤 9시 합심기도를 병행하며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살도록 권면했다. 그러나 자칫 동영상이 예배의 중요성을 놓친 성도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 현장예배를 앞두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은 성도들의 영적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준호 기자)

가정선교



11. 가정의 질서회복

온전한 가정선교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 중 가장 최상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부부, 곧 남녀에 대한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편 목사님이 임직자와 교인들에게, '목목, 장장, 권권, 집집'이란 권면의 말씀을 하셨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과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즉 가장(家長, Headship)으로서 가정의 대표자, 가정의 제사장, 예배의 인도자, 가정의 양육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2. 아내(어머니)의 위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만사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창6:1-3).

만일 각자의 위치를 벗어나면 탈영이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를 기입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맡은 역할 잘 감당하면 가정의 질서회복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자식의 역할 감당

의 질서인데, 그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고 뒤바뀌게 되므로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견잡을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고전 14:33), 질서의 하나님(고전 14:40)이심을 전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키려면 먼저 가정의 구성요소인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 자식간의 위치와 역할이 제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데,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고 월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만 잘하면 가정의 문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1. 남편(아버지)의 위치와 역할

와 역할 한 남편을 돕는 배필(Helper)과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관리자, 자녀에 대한 교육자, 가정의 영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3. 부모와 자식의 위치와 역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함으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협력할 때에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헝가리

안녕하십니까? 건강하며 평안하신지요? 생활에 제한이 많은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딤후4:5-6).

어려운 때에,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전에는 헝가리어 성경(어린이용)을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읽고 필사하며, 저녁에는 모국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사하며, 이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예배자들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2. "주일학교"에 "오셰아틸라 고아원(보육원)" 아이들의 외출이 허락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3. "거리교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들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소서!

4. 최근 가장 슬픈 일은 세레나(56살)의 죽음과 그로인해 키우던 손자 세비가 멀리 떠난 것입니다.



음식과 필수품을 선물봉지에 담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소식은, 큰아들 부부가 어느새 결혼 10주년을 맞았고, 둘째 아들(군목)네는 임지를 옮겼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소식과 기도제목은 아래 사진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보았습니다(사진은 왼쪽부터 아래로).

1) "소금과빛개척교회" 2) 주일학교 3) "거리의 교회"(남부역) 4) 심방사역과 기타

1. "소금과빛개척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긴 하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

히 여겨 데려와 키우던 세레나였는데, 암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희쉬 슬럼가"에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Majestic God!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홍근&서명희 드림.

성령이여 오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보나 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해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함께하는 삶은 자유를 희생해서는 이룰 수 없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아나고 있는 일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익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한다.

베드로는 첫 번째 무리에게는 한두 마디로 답변하지만, 깊은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시간을 들여 길게 설명한다.

말한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실 때, 남자와 여자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속하신다고 전한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21세기 미국교회에서도 진실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뉴욕몽양로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빛과소금교회, 퀸즈장로교회, 브라질 한인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안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지안 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코로나와 온라인예배

김향안 목사 (한국교회 정보센터 대표)



전혀 새로운 예배 환경에서(상)

2020년 초 한국교회는 전혀 새로운 예배환경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온라인예배였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가 화두로 대두되었다. 교회 역시 이 화두를 피해갈 수 없었다. 교회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신천지 신도들에 의해 대형 집단감염이 일어났고, 일부 교회들에서도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지장이 있었고 급기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르렀다.

사실 온라인예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설교자들이 인기를 끌었다. 대중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무장하고 깔끔한 외모와 유려한 언변으로 미국의 신자들을 사로잡았다. 개중에는 개인적인 일탈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은 이들도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기독교계통의 텔레비전방송국들이 설립되면서 소위 말하는 몇몇의 스타 목사들을 배

인터넷 발달의 시대에

텔레비전 방송설교와 시청의 경향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환점을 맞았다.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는 교회들에서는 인터넷방송으로 예배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적으로 통신환경이 급격히 발전하였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이동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등의 영상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이때는 작은 교회들조차도 인터넷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예배실황을 중계하고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영상의 시대가 도래하였어도 예배만큼은 예배당에서 모여 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담임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 찬송하며 설교를 듣는 전통적 예배방식이었다. 모이는 교회라는 개념이 강한 전통적 신앙이 가졌기 때문이다. 모여야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여야 부흥하는

한국 기독교 TV방송은 기독교 내세운 상업방송과 초대형교회 마케팅, 다양한 설교 보려는 성도들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 TV방송 설교 시청경향, 인터넷 발달로 전환점 맞아

출하였다. 텔레비전방송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기독교계 라디오방송국에서 설교자들의 설교방송을 내보냈다.

한국의 기독교계 텔레비전방송국에서는 사실 예배의 전 장면을 중계하는 측면보다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의 설교를 녹화하여 송출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측면보다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방송하고, 방송국은 후원수입을 얻으며, 일반 성도들에게는 텔레비전을 통해 설교를 듣고, 방송국에 후원하는 등의 예배와 설교를 소비하는 형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기독교를 내세운 상업방송과 초대형교회의 마케팅, 다양한 교회와 설교를 보려는 성도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전부터 텔레비전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몇몇 초대형교회는 지교회들을 세웠고, 지교회에서는 초대형교회의 담임목사 설교를 영상으로 시청하였다. 몇몇 교회들은 사망한 목사를 잊지 못하여서 목사가 살아있을 때 설교한 영상을 시청하며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 데 영상으로 설교를 시청하는 예배와 사망한 목사의 살았을 적 설교영상을 시청하는 예배가 과연 올바른 예배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 자주 많이 모이자는 권고가 지속되었다. 교회에서 모임을 폐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교회마다 모임이 축소되는 분위기가 많았다. 사람들의 삶이 운택해지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교회들마다 신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성향이 생겨났다. 주일에도 저녁예배는 사라지고 오후예배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은 교회들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등의 예배를 아예 갖지 못하는 곳도 있었고, 겨우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에 대형교회들은 하루에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일곱 번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교회는 더 많이 모이기 위해 예배를 기획하고, 신자들의 욕구를 충족할만한 콘텐츠를 준비하였다. 인프라가 있고, 인력의 지원이 있으며, 예배기획자들이 있는 교회는 점점 더 많이 모이는 추세였다. 작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대형교회는 더 많이 모이는 양극화 현상이 생겨났다. 인터넷시대에 영상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영상예배보다는 모이는 예배를 선호하고, 영상은 예배실황 중계 혹은 녹화로 신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kcdc1217@hanmail.net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왕하5:1-4)

본문 교훈은 성도는 자기 상황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으로써 주변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와 가정부로 들어간 아주 연약한 소녀입니다.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소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아만 장군은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을 다해 성실하게 살 때 그곳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녀의 믿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만 가면 낫을것 이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소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파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지요?

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왕하5:5-7)

본문 교훈은 세상에 아무리 권세를 가진 왕 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달라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부탁합니다. 이 편지는 아람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왕이 편지를 읽고 웃을 찻

고 불안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자기에 시비를 걸러온다고 미리부터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소녀와 이 한나라의 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성도는 하루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왕하5:8)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엘리사의 말대로 치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왕은 잘 부탁한다고 편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왕은 지금 시비 걸러온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엘리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왕의 부정적 말을 듣는 순간 즉시 사람을 보내 믿음의 말로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왕이 하나

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엘리사는 오히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좋은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와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왕하5:9-10)

엘리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된 줄 믿고 더욱 담대했습니다. 본문은 성도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람왕과 나아만 장군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나병을 고쳐줄 것을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

청할 때 성도들은 사랑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만약 나아만 장군을 환영해 정성을 다해 병을 고쳐주면 나아만 장군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비위를 맞추고 굽실거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보낸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왕하5:11-12)

나아만 장군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립니다.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버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내 생

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바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체면과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체면과 자존심 다 버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왕하5: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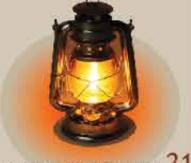
나아만 장군의 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때 이 종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려줍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이 극존칭은 최고의 존경과 충성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이 종들은 지금 나아만 장군의 아픔과 화난 것을 이해하면서 존경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아만 장군이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지혜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병이 낫는 것입니다. 화가 나있고 자존심 상해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코로나19와 교회 [6]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교회를 안전하게 재개할 단계별 접근 방안

사역을 재개할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결정 수 주간의 재택명령이 내려진 후 실업률이 높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정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검사, 접촉 추적 및 검역 능력이 부족하다고 경고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제한을 완화하고 모든 사업체를 재개하도록 서서히 허용하고 있다. 많은 주 정부가 협동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 및 주 차원의 정부 지도자들이 혼란을 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정치화되고 있다.

여러 의견이 들려오는 가운데 교회는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 결정을 위한 이정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 두 개의 이정표, 즉 성경적 진리와 과학적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대개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22:37-39)고 말한다. 나 자신을 아긴다면 이 유행병 기간 동안 감염되지 않도록 각자 조심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사랑도 타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더라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영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가 있다. 이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교회가 이러한 요구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배, 기도, 격려, 말씀 증거, 제자훈련, 봉사를 하면서 부르심을 따랐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과학지식

전 세계적으로 최선을 다해 현재 코로나19를 연구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지식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많은 국가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교회와 관련하여 사역을 재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초기에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야 한다. 처음에는 사망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노인들에게 중점을 두었다. 그런 다음 고혈압이나 당뇨 병과 같은 일반적인 만성질환을 가진 젊은 성인들도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 중 60%가 65세 미만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5%가 심각한 코로나19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우리는 어떤 통제수단이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실험사례, 연락처 추적 및 격리를 통해 중대한 제약 없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

다를 뿐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코로나19 사례가 여전히 높거나 이제 막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여러 주에서는 뒤늦게 재택명령을 시작했다. 따라서 전파는 계속되고 새로운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광범위한 검사와 효과적인 접촉 추적 및 격리를 통해 증가율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검사와 훈련된 직원, 효과적인 추적과 격리가 미국의 모든 지역에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완벽하게 통제 불가능한 전염병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전염병 사례를 크게 줄인 지역도 주변 지역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최신 과학지식을 적용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장 사역을 재개하는 결정

성경적 진리와 과학적 지식 의존한 이정표 세워 지역사회 감염 정도에 맞춰 교회활동 횟수 조정

도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은 왜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고 은밀하게 전염되는지를 설명하고 전염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감염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될 때 전염이 확산된다:

코로나19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염성: △호흡기 비말을 주변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행위 △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경우(6피트 이내) △외부 환기가 제한된 밀폐된 환경 △감염된 사람과 보내는 일정한 시간 △다수의 사람이 모인 모임의 유형(예. 세대간 혼합) 이러한 요소가 많을수록 전염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면 전염위험이 줄어든다(표1, 제1779호 11면 참조).

둘째, 코로나19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

이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해냈다. 증상이 시작된 후 2-3일 이내에 코로나19 환자를 검사하고 대부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한국과 대만이 신속하게 연락처를 찾고 격리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기능과 함께 잘 만들어진 연락처 추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사람이 기침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호흡기 비말이 주변 공기로 방출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마스크 사용의 주요 이점은 감염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다. 감염될 확률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된 사람이 코를 문지르며 접촉한 표면에 바이러스가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의 감염 정도만

을 고려할 때, 우리는 먼저 교회가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이 높은 환경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활동에는 공기 중에서 코로나19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으며(표1, 제1779호 11면 참조), 따라서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면사역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활동을 하는 동안 공기 중에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요소 제한 필요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맞춰 교회활동 횟수를 줄이거나 늘릴 것 △감염된 사람과의 연락처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추적할 수 있어야 함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교회활동을 재개할 것. (끝)

특/별/기/고



황의영 목사(SBM 대표)

먼저 가신 장영춘 목사님을 추모하며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 우리 곁에 더 오래 계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으로 부르시니 사실 수밖에 없지요. 그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그 날, 2020년 4월 10일 성금요일 오후 4시 50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과 시간이 같아서 더욱 뜻 깊은 소천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 순간을 되새기며 다소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같이 장 목사님도 평생토록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유감없이 다 완수하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아쉬움이 너무도 크기에 장 목사님이 계시던 자리와 공간이 텅 비어 있음을 느낍니다.

곁에 계시는 때는 잘 몰랐으나, 그렇게 말없이 조용히 떠나시고 나니 갑자기 그리운 생각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시리도록 허전합니다. 하지만 장 목사님께서 남기고 가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 그 유산을 고이 간직하고 그리울 때마다 머리에 떠 울리며 천국에서 뵈옵는 것을 위안 삼고 남기고 가신 모든 사역들을 값진 교훈으로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장 목사님은 북한 땅 황해도에서 월남하시기 전에 고향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시며 특별한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 6.25전쟁의 와중에 몸이 가난하여 굶주리던 시기에 신학공부를 하시며 목양일념으로 신용산교회에서 목회하시며 특별히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어 어린이 기독교교육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주일학교 교재가 전무하던 때였습니다.

둘째로, 장 목사님은 목회철학이 분명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사신인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온전히 세계교회를 향하여 씬 없이 외치시며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셋째로, 투철한 개혁정신과 열정과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장 목사님의 영문이름인 Joseph이 말해주듯 요셉과 같은 꿈을 실현하셨습니다. 퀸즈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뛰어넘어 세계선교의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이웃들을 따뜻한 손길로 도우셨습니다.

특별히 후진양성을 위해 동부개척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시고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통하여 세계교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통로가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해마다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를 주최하시어 세계 각국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및 평신도지도자들의 영성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장 목사님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먼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남겨 놓으신 값진 사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되새기며 못 다 이루신 사역들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성실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sbmusa@hanmail.ne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리더십 석.박사 MBA, DL, Ph.D.

리더를 위한 전문 학위과정

34년 전통, 70여개국 동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한국어, 영어, 특강, 온라인

미국유학 가능 (SEVIS I-20, J-1 Visa)

Graduate School of Leadership 리더십 대학원

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Major

Brain / Gifted Educational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Defense Fusion Leadership	국방융합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Leadership	혁신경영 전략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International Culture & Arts Leadership	국제문화예술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항공
Organizational / Ministry / Mission Leadership	조직, 목회, 선교	Public / Political Leadership	공공, 정치
Real Estate Management Leadership	부동산 경영	Sports Management Leadership	스포츠 경영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